AUG 9 1937

朝鮮日報
夕刊
七日(土)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本社定期刊行物◆
少年朝鮮日報(日曜附錄)
朝鮮光明(一月一回發行)
同『女性』(上)
同『少年』(上)

漢陽タクシー 京城鍾路一丁目 電光三〇〇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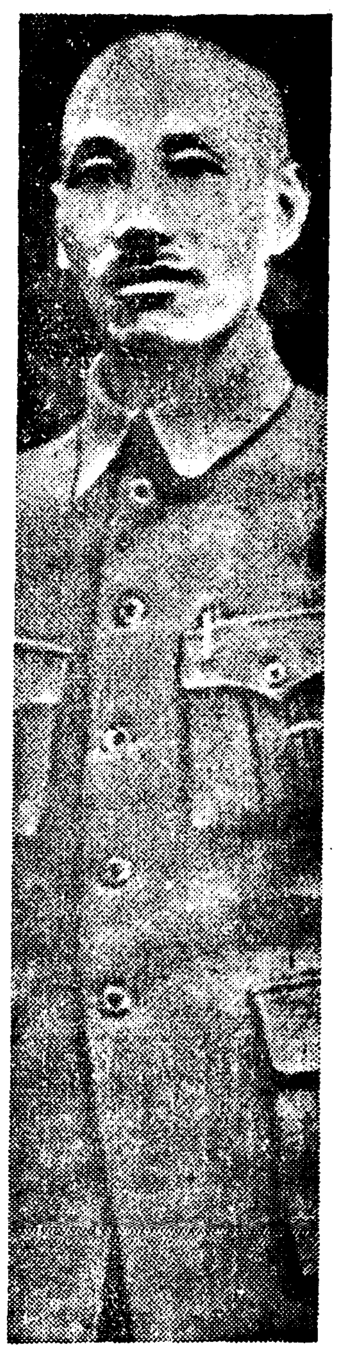
應戰不可避！

開戰論에意見遂一致

自重派도結局開戰不得已視

蔣은一言半句도不言

國府國防會議 (第一日)



【南京六日發同盟】全國國防會議는 六日午後二時부터 蔣介石司會下에 軍事委員會에서 第一次會議를 開催하엿다

出席者는 中央側 蔣介石、何應欽、馮玉祥、程潛、地方側 閻錫山、白崇禧、余漢謀、何成濬、朱紹良、黃紹雄、熊式毅其他、汪精衛、王寵惠等인데 何應欽으로부터 北支의 日支兩軍開戰에對하야 汪精衛로부터 國際情勢에對하야 各各詳細한 報告가잇슨後 國民政府가 取할 最後的態度에對하야 討議하엿는데 그結果 支那는 이미最後의 竿頭에서잇슴으로 對日應戰은 不可避라는데 意見이一致되엿다 그리고 戰略에對한 問題에드러가자 白崇禧와가티 積極的主戰論者인 馮玉祥은

『北支五省은 危殆에瀕하야 벌서 조곰도 猶豫를不許한다 死生存亡의 竿頭에서잇스므로 戰鬪하지안흐면 斷然코 生存을求할 道理가업다』

고 日支의 全面的開戰論을 主張하고 馮治安、劉汝明等 二十九軍諸將領으로부터 到着한 多數의 危急電報를읽으며 余漢謀 孫科等도 馮玉祥의 主戰論을 支持하엿는데 이에對하야 何應欽、何成濬等은

『應戰은 不得已하나 開戰은 時期를 잘보고하여야할것이다』

고 自重論을述하야 蔣介石直系와 馮玉祥及地方派와의間에 意見이對立되엿다한다

그러나 이사이에 蔣介石은 一言半句도 發하지안코 終始悲壯한 面貌로 午後六時散會하엿는데 會議는 七日도 續行하기로決定되엿다 (寫眞은 蔣介石)

刻刻으로險惡化하는漢口情勢

支那軍益益挑戰

九日까지居留民全部撤退

【漢口七日發同盟】支那軍一萬의 包圍裡에 不安한一夜를보낸 我漢口租界居留民은 今朝에야 愁眉를半開하엿스나 支那軍第一線은 益益軍備를嚴重히하야 租界와二十米떠나잇는 家屋에 機關銃을備置하고 境界線의鐵條網을除去하고 樹木을찍는等 依然挑戰的態度를 取하고잇다

【漢口六日發同盟】約一萬의 支那軍에 包圍된 漢口日本租界는 依然히 無氣味한 緊張裡에 夜에入하얏는데 我陸戰隊는 非常警備에 任하야 租界警備와 在留邦人保護에 萬全을 期하고잇다 그리고 婦女子全部四百名及 男子一部百名은 信陽丸으로 七日朝出帆하야 上海로 向하고 殘余의邦人五百名은 九日朝出帆의 岳陽丸으로 避難하기로되엿다

森嚴한漢口警備！

【漢口七日發同盟】漢口日本租界의 周圍는 鐵條網土囊等으로 嚴重히防備를 하고잇는데 我陸戰隊警備隊는 各其警備配備에 當하야 非常警戒를 行하고잇다 一方支那側은 要所要所에 堡壘를急造하야 約一萬의 支那兵은 물샐틈업시 租界外廓을 圍繞하고잇다는데 昨夜는 無氣味한 中에도 極히 平靜하엿다

支那駐屯軍必要與否

米上院에決議案提出

【華府六日發同盟】일리노이州選出民主黨上院議員루이스氏는 北支事變勃發以來 米國駐屯軍의北支撤退論을 熱心으로主張하고잇더니 六日上院에서 如左한決議案을 提出하엿다

一、北平及天津에 米國軍隊를依然히 駐屯사키는理由가 잇는가 그與否에關해 支障이업는限 우드링陸軍長官의 說明을求한다.

鯉登部隊戰死者

將兵合七十四名

朝鮮軍司令部發表=七月二十五日부터 七月二十九日까지 郎坊、南苑、團河村、天津附近에잇서 鯉登部隊의 戰死者는 全部七十四名인데 그氏名은 左와如하다

少尉 濱地篤雄▲准尉 田伏稍治▲曹長 岸高次郎▲軍曹 相良末廣▲同村上光德▲同西脇逸治▲伍長 和坂清次▲同養毛政光▲同友田治雄▲軍曹尾上進▲步兵一等兵 坂地法夫▲同本田治一▲同上等兵 重矢才夫▲同一等兵 東助則▲同上等兵 扇江喜八▲同角川隆▲一等兵 西川德藏▲同川口彌一郞▲同市田重太郎▲同辻田彌一▲同川端勇▲步上松井寅一▲步一 大石弘明▲同湯淺春一▲同小坂田照雄▲同杉浦高雄▲同北野一雄▲同富田專造▲同前田重行▲同八尾展生▲同谷所卯之助▲步一 殺所信夫▲步上 西村正雲▲同橋本正一▲同大橋康治郞▲步一 田邊竹志▲同 桃原正造▲同 枡清一▲步上 片瀨保▲步一 宮本春▲同 松井德雄▲步一 阿部良▲步上 笠井秋吉▲同 瓜正博▲同 米本邦一▲步一 酒井秀夫▲同 今中勝次▲步上 矢野守▲步一 大村武▲步一 木村新次▲同 中村久藏▲同 岡田親司▲步上 山崎清▲步一 森重三▲步上 三村平吉▲步一 後藤正▲步上 廣瀨昌一▲同 西谷貢生▲步一 堀田寛誠▲同 三木信雄▲步上 中井勝義▲步一 辻由澳一▲同 吉川初男▲步一 峰谷忠三郞▲同 井上茂▲同 豬野信次▲同 橋爪茂

七月二十六日郎坊附近戰鬪에서戰死者氏名

▲步上 細谷富雄▲同 若林義男▲同 梶上立己▲步一 北井章▲同 柴村金二郞

最惡의境遇外엔

我館員은不撤退

【南京七日發同盟】事態緊迫에鑑하야 南京總領事館當局에서는 六日夜 日高參事官을 中心으로 時局對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最惡의事態에 直面하지안는限 끗까지 南京에 留하기로決定하엿다

秩父宮兩殿下

御旅程御變更

【東京電話同盟】目下御外遊中이신 秩父宮同妃兩殿下께서는 今後의御日程을 全然御變更하시사 瑞、白、佛、伊、米各國의御歷訪을一切御中止하시고 瑞西에約一個月間 御靜養하신後 御豫定보다빨리 御歸朝하시겟다는旨、六日宮內省에入電이 잇섯스므로 松平宮相은 同日午前午後에 표하야 白根次官 木戶宗秩寮總裁 野口事務官과協議하야 列國御歷訪御中止에關하야 即時天皇陛下께奏上 勅許를仰하와 아마七日御裁可後 兩殿下께 그旨를 御通知하여드릴터이다 兩殿下께서는 御渡英以來 再次의 御發病으로서 目下 海牙市에서 御靜養中이시다 倫敦에잇서 妃殿下의 御病은 相當히 御重態이시엿는데 今回거듭하는御發病으로 瑞西의"그린델와르트"에 나가시사 約一個月間 御靜養하실 御豫定이시다 兩殿下께서는 御病도거시기거니와 北支의時局을 極히 御念慮하사 御日程을 御變更하와 早急히 御歸朝하시게되신것이라고 拜承된다 그리고 御歸朝의 御旅程에 對하여서는 目下宮內省 外務省方面에서 여러가지로 調査研究中인데 印度洋 御經由와 加奈陀 御經由의 二案이잇스나 只今아직 어느便으로도 決定하지못하엿다

支那爆擊機十臺

日本租界上空威嚇飛行！

【漢口七日發同盟】七日午前十時지나 支那軍爆擊機十臺는 機翼을連하야 日本租界의上空에 飛來하야 約一時間威嚇飛行을 行하엿다 租界를 包圍한 支那軍의包圍陣도 益益增强되고 잇다

各地領事館全部撤退

【漢口七日發同盟】當地總領事館員은 奧地로부터 撤退하여오는 重慶、沙市、宜昌、長沙各領事館員과합겨 殘務를整理한後 九日洛陽丸으로 下江하기로決定하엿다

在留居留民도撤退

【南京七日發同盟】在南京大使館總領事館 陸海軍武官等 公務員을除한 南京在留同胞二十餘名은 日出清麗陽丸으로 上海에撤退키로決定하엿다

政府獨自的見地로

革新政策遂行에邁進

【東京電話同盟】北支事變下에열린 第七十一回特別議會는 會期를延長지도안코 豫定대로七日로써 二週間의會期를滿了하엿다 政府는今後 議會通過의諸法案 豫算의實施와및革新政策의 實行에 向하야 邁進하게되엿는데 北支事態는 아직도前途의 豫斷을 不許하야 前後二回에亘한 事變追加豫算과 事變特別稅에 依하야 北支事變에對한 應急經費의 協贊을 어덧스나 今後도 아직 事變의擴大로 臨時議會를 召集하게될지도 推測키어려운 情勢에 잇스므로 政府로서도 北支事態의 推移에 深甚한注意를하는 一方 그措置에 關하야 衆議院의 政府鞭撻決議의 趣旨에 則하야 國民의支援을 背景으로하야 어데까지던지 東亞平和의 確立을 目標로하야 邁進하기로하고 또 現內閣의標榜하는 革新政策의하나인 保健社會省設置에 要하는經費도 協贊을어덧슴으로 議會終了와함게 新省設置의 具體的手續과 大臣次官以下首腦部의 人選에着手하며 또所謂三原則과 日滿을一體로하는 綜合產業計劃을 包含한明年度豫算編成을 急速히하고잇다 그러는一方 中央經濟會議에서는 物價調整을爲한物價委員會를開催하며 또現內閣獨自的政策의 一端을示하는 貴族院制度改革을 包含한 議會制度全般에 亘한革新 敎育審議會에依한 學制의 全般的改革根本的內閣制度其他 行政機構改革等은 內閣成立當初에 聲明한 社會正義及 國際正義確立의 指導精神에 基하야 諸政策에 適應할 現內閣獨自的 革新政策具現化에 向하야 邁進하기로되엿다 (寫眞은 近衛首相)

001576

非常時의特別議會

今日最終的으로審議

事變關聯諸法案順調로成立

擧國一致的支援發揮

【東京電話同盟】六日의貴衆兩院은 追加豫算第二第三號의成立을비롯하야 北支事件追加豫算第四號 北支事件特別稅法案等의重要議案에對한審議를 順調로 進行하야 今期特別議會도 七日의最終日을이에 마지하게되엿다 衆議院이 六日의本會議에서 各派共同提案에依한 北支事件에關한 政府鞭撻決議案을 滿場一致로 可決한것은 北支事變에對한 全國民의 擧國的支援을 如實히 示한것으로 자못 注目되는다 이에對하야 廣田外相이 政府를代表하야 北支問題의根本解決에 邁進할旨를 聲明한것은 今議會의 가장感激的場面이엿다 如斯히하야 最終日의 七日兩院에서는 貴族院의北支事件에對한 追加豫算及北支事件特別稅法案成立을 기달릴뿐으로되고 이미 衆議院에서는 別段重要議案도업서 特別委員會에 附託한 法律案數件及建議案等을 一括上程하야 玆에意義기픈 第七十一特別議會의幕을 無事히다치고 北支事變의今後推移가 아직逆睹를 不許하는中에 入日豫定대로 閉院式을擧行하게되엿다

最終日貴衆兩院

一瀉千里諸法案通過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一特別議會最終日인七日의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十五分開會 即時日程에 들어가 濱口請願委員長으로부터 委員會의審議經過와및 結果報告가잇섯다

一、昭和十年度第一豫備金支出의件(承諾을求하는件)(衆議院送付)
一、昭和十年度特別會計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年度特別會計第一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年度滿洲事變費第一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一年一月부터同年三月까지、昭和十年度第二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年度豫備金外의豫算超過及豫算外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年度特別會計第二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年度特別會計豫備金外에 豫算外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一年度第二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一年度特別會計第二豫備金支出의件(同上)
一、昭和十一年度特別會計豫備金外에잇서서 豫算外支出의件(同上)

等十一件을 一括上程하고 平川委員長으로부터 報告가잇슨뒤에 全會一致로 承認하기로 決定하엿다

一、船員法改正法律案(政府提出 衆議院送付)
一、通信事業特別會計에 잇서서의 簡易生命保險及 郵便年金의 事務取扱에要할 經費에關한 法律案(同上)

을 一括上程하고 西鄕委員長으로부터 報告가잇슨後可決한다음

一、燃料國策에 關한 建議案(公爵島津忠重氏外五名提出)

을上程한後 書記官으로하여금建議案文을 朗讀시킨後 島津忠重公提案理由를說明키爲하야 經過說明하고 全會一致로 可決 이때에 吉野商相發言을 求하야 吉野商相 將來특히 天然資源開發에 努力한다고述하고 松平議長 午後三時半까지 休憩를 宣言하다

【東京電話同盟】第七十一議會最終日인 衆議院本會議는 七日午前十一時五十八分開會

一、昭和十年度歲入歲出總決算
一、昭和十一年度各特別會計歲入歲出總決算
一、昭和十年國有財產增減總決算

을上程하고 委員長宮澤裕氏(政友)로부터 委員會의經過와및結果에對한 報告가잇고 附帶決議를附하야 承認하기로 決定한다음

一、貿易及關係產業調整에關한 法律案(政府提出貴族院送附)
一、工業組合法中改正法律案(同上)
一、貿易組合法案(同上)

等三案을 一括上程하고 委員長 增田義一氏(民政)로부터 報告가잇고 委員長報告대로可決

一、百貨店法案(政府提出貴族院送附)

을上程 委員長 島田二郎氏(政友)의報告가잇고 可決한다음 請願百四十八件을 一括上程 委員長 靑木亮貫氏(民政)의報告대로 採擇하기로 決定하고 午後零時二十五分休憩하다

八面錄

◇ 巾着網의出現以來 刺網業者는 大打擊을밧는中이라고。
◇ 機械工業이 手工業을 몰리치는順序라면 資本時代의 定해노흔"코ー스"。
◇ 그러나 漁獲區域을 制限한다면 共存共榮을 못할것도아닐것。
◇ 巾着網은 大海로가라、沿岸漁獲은 刺網에주라、이런方法을嚴守하면若何。
◇ 咸興管內에 支拂命令이 一千五百件、但 一月以來七個月分이라고。
◇ 命令밧고 支拂할能力만잇다하면 어찌타 命令을 기다릴것인가。

米蘇新通商協定

루즈벨트大統領公布

【華府六日發同盟】米國政府는前부터 蘇聯과의間에 米蘇通商協定改正交涉을 進行하고잇더니 요즘協定이成立되여 루즈벨트大統領은 六日午前十時에 新協定을公表하엿다 新通商協定은 去七月十二日 滿期失效된 協定에代位하는것으로 期限은 겨우一個年이나 米國이 蘇聯邦에對하야 비로소關稅上의利益을 與하엿슬뿐만아니라 他國에許與한 通商上의特權을 全部許與한點은 特히 注目되는데 新協定의要旨는 如左하다

一、蘇聯邦은 적어도 四千萬弗의 米國製品을 購入할것을 約함(前回協定에서는 三千萬弗)
一、右의代價으로서 米國은 蘇聯邦에 對하야 無條件으로最惠國待遇를 許與함
一、期限은 一個年으로함

大野總監十日歸京

特別議會에 政府委員으로서 出席하야 總督府關係追加豫算百六十萬圓을成立식히고 其他重要政務에關하야 中央部와協議하기爲하야 渡東中이든 大野政務總監은 明八日午後十一時 東京驛發 一路歸任의途에올라 來十一日午後三時四十分 京城着『노조미』로歸京할터이다

人事·集會

▲朴榮喆氏(商銀頭取) 樺太視察中七日朝歸京
▲柳生繁雄氏(總督府社會課長) 七日夜釜山에出張
▲原田棟一郎氏(朝日新聞社常務取締役)同部記者 葬式人事次來社
▲內田眞吾氏(大朝通信部長)同
▲金仁鎬氏 鍾路三丁目 中央醫院 開業人事次來社

今日少年朝鮮日報發行

酷暑에 안지는 全身의健康法

더위로 心臟이 弱해저서、動悸、숨갑붐이甚하고血壓이놉허 걱정인분……

가슴病이더하야甚히 衰弱하신분……

消化力이衰退하야食欲이 더 업서진분……

이러케 貴重한內臟의衰弱하신분은 먼저홀몬을 充分히 補給하야 弱해진內臟의 活動力을 振起하야 充分히 體內의抗病力과 健康促進力을 充實식히지안흐면안됩니다

이런데는 옛날 諸侯들이 印籠藥으로 珍重히여긴 麝香、熊、犀、眞珠其他數種의 貴重動物精膽으로 精製한 皇漢藥『救心』이 小粒으로 먹게조코 衰弱한 胃腸에라도 잘體內에 吸收同化되여 홀몬作用을 活潑히하야 內臟을 强케해서 眞正한健康을 만드므로 體驗하신분들은 大端한 好評을 하고잇습니다

目下實驗을爲하야『救心』二日分을 無代進呈中이오니 速히葉書로申込하서서 體驗하시기바랍니다

「救心」으로腹中이편하고、便通도조아진다

島根縣那賀 山崎利雄

心臟의動悸、숨갑분것도「救心」으로安心

千葉縣安房 太田和宇吉

이外에 가슴아리、心臟脚氣、神經痛인분들부터 每日謝禮狀이옵니다

『救心』의 藥價는 一週分 一圓、二週分三圓五十錢、三週分五圓으로 一流藥店有名百貨店에잇습 品切일時는救心本舖로 振替東京七一二六番

效力잇는疾狀

◇心臟病으로苦痛하는분
◇肋膜과肺가나쁜분
◇胃가弱하야食慾업는분
◇心臟이弱해서動悸와숨갑븐분
◇가슴이弱해서熱과기침나는분
◇盜汗으로밤에苦痛하는분
◇神經으로手足알는분
◇心臟脚氣로苦生하시는분

無代進呈

「救心」二日分

目下「救心」二日分과「心臟의手當と食養生」를一人一回에限하야葉書로申込하신분께無代進呈합니다

東京市京橋區西八丁堀二丁目二十七

申込은 堀救心本舖

電話京橋二〇一一番

北支朝鮮人安定費 四十萬圓要求決定

安全農村、金融機關、敎育、醫療機關等

現地居留者는三萬九千餘名

총독부 외무부(外務部)에서는 북지의 재류동포를위하야 명년도에 약사십만원의 예산을요구하기로되엿다

그내용은 현재북지일대재류동포는 전부약삼만구천명으로아직까지 어떠한보호시설에대하야 이러타고 할만한것이 업는데다가 이번사변으로 가일층비백산지경에 빠저잇는 현상이라 어떠한이 곳평정된후에라도 이들을위하야 상당한시설이 업스면 도저히 안정식힐도리가 업슴으로 오래전부터 끄으러 나려오든 안전농촌문제를 비롯하야 금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등의 시설을 완전히 하야 영구한 락토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은 북평(北平)천진(天津)산해관(山海關)진황도(秦皇島)일대를 중심으로하야 시설할려니데 안전농촌건설비로는 이미 외무성(外務省)에서 사만원의보조가잇기로되엿다

事變以後歸還者 老幼等一千餘名

無依無托者는現地機關에收容

중일협의한북지사변으로 초연한우중에싸힌 북평(北平)천진(天津)일대에는 피비린내 끈칠때가 업다 총독부에드러온전보에의하면 이로인하야 북지일대에 산재하야 각각상당한 직업적근거를가지고잇든 재류동포들은 너무도 시국이무시무시함으로 사변발생이래 로약의부녀자(가족)들 약일천여명을 조선으로 보내엇스며 최근에도 매일수십명의 부녀자가 조선으로 도라오는중인데 이것도 그곳에상당한근거를두고잇는 재류동포들이나하는일이요 동란에쫏겨서 대사관기타 총독부파견기관의 보호를받고잇는 피난동포들은 어것도 저것도다못하고잇는중이다

北支將兵들에 清涼飮料提供

飮料水가第一不便

일백삼십도 염열하에 의기자못 왕성한 북지황군 장병을격려 위문할 식량공급에 관하여는 총독부에서도 여러가지로생각하야 간헤말린고기를 보내려고 계획중이데 가장 현지에서 결핍되고 또질이납버서 곤난한것은 식량보다도 음료수(飮料水)인모양으로 최근총독부상공과에 『사이다』란산등 청량음료오천상자(한상자 네다쓰트리)를 보내달라고 북지현지로부터 주문이잇스나 조선에는 곳이에 응할만한 현품이 구비되지못하는 현상임으로 상공과에서는무엇보다도 이주문에 응하여야한다고 곳일본내지로 부터 원료탄산(炭酸)을주문하여다가 조선내청량음료제조업자를 독려하야 북지의황군장사와 거류민들에게 보내기로되엿다 그리고 어소식을들은경성식료품조합에서는곳『사이다』란산음료백상자를 황군위문으로보내기로 되엿다한다

瓦斯가爆發 人夫一名慘死

【咸興】 지난삼일오후세시쯤 함주군본궁(本宮)에잇는 조선질소(朝鮮窒素)게의『알모니아』합성공장 건축공사 서송조작업장(西松組作業場)에서 「카-바이드」중 「카-바이드」로서 철재를 용접하든 「까스」관이돌연폭발되야 일하고잇든인부 리운준(李雲俊)(十七)(평남출생)은가슴기타에 중상을입고 곳조질회사부속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치료를 바덧스나 약십오분뒤에죽엇다고한다

江界農校長宅 一家鏖殺犯上告

재작년십이월에 평북강계농림학교(江界農林學校)교장하야룡삼(河野龍三)씨의집에 침입하야 그가려행가고업는사이에 독기로 금전가족여섯명을 찌거죽이고 금품을 강탈한후 범행을 감추기위하야 그집에 불까지지르고도망하엿든 중국인 당시강계공립고등고(三…)의집에 유숙하며 강계공립학교공사장에서 석공노릇을 하든 왕세면(王世勉) 리선청(李善正)(三七) 두명은 강도살인방화죄로 그간 신의주지방법원에서와 평양복심법원에서 각각사형판결을 바덧는데 그래도 죽기는 원통하다 하야 또다시 불복상고하야 기록일체는 유일고등법원으로 너머왓다

國防獻金遝至

朴榮喆氏 一萬圓

동양척식회사(東拓)、식산은행(殖銀)、조선은행(鮮銀)에서 국방비로 각각오만원식 헌납하엿슴은 이미보도한바이니와 금융조합련합회(金融組合聯合會)에서 오만원 상업은행 두취(頭取) 박영철(朴榮喆)씨가 일만원을 국방비로 헌납한바잇섯는데 총독부에서는 확해 그송금에대하야 방금수속중이다

▲륙일까지에 경성군사후원련맹의 자금으로 돈을낸사람은 다음과가트며 총계 이천구백…

▲百圓 救世軍京城小隊信徒
▲二百圓 海東銀行員一同
▲五百圓 東⊙町李丙獻
▲二百三十四圓四十五錢 朝鮮新聞社員(三十二件)
▲百圓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四百十圓 朝鮮銀行行員一同
▲三百圓 세브란스醫用品商會員一同
▲八百圓 京城로타리俱樂部員一同
▲百圓 京城第一購買組合從業員一同
▲百六十一圓九十七錢 外八口

繭以外小荷物限 平常대로輸送

貨物로短區間은受托할方針

鐵道輸送制限緩和

철도국에서는 작보와가티 경인(京仁) 평남(平南) 동해중부(東海中部)등 단거리의 지선일부에는 일반화물의 취급을하기로 제한을 해제하엿는데 다시 이번에는 한거름더나아가서 본선(本線)에도 소하물(小荷物)중 경부선부산(釜山)방면으로부터경성방면으로 보내는 고치(繭)와경원선(京元線)중 청량리(淸凉里)이북 경성방면서 원산(元山)방면으로 가는고치는 취급치안키로되고 그밧게 다른소하물은대체로 평소대로 수송하기로되엿다

또 화물은 제한이외의 화물이라도 각철도사무소의 관내에서 발착하는 화물에만 현재렬차의수송력(輸送力)이미치는 범위안에서 사무소장이 수탁(受託)을 승인하기로 되엿스므로단구간이나 또한소량의 화물은대체로 취급하기로 완화하엿다한다

人名의死傷은 大部分沙汰로

交通總杜絶로孤立化한朔州

慘憺한罹災民狀況

【朔州에서本社特派員金明錫發電】 삭주(朔州)의 피해는 수해도 컷지만 인명피해는 거의 산사태로 인하야 생긴것이 판명되엿다 오일밤부터 펴붓기시작한 비는 육일오후부터 호우가되여 일주야를 계속한고로 도로는전부친수되여 삭주를 중심으로하는 각지의연락은 완전히 두절되고말엇스며 이군내에서 피해가 가장만흔 외남(外南)수풍(水豐)양산(楊山) 남서(南西)의 네면은 읍내와의 거리가 팔십리로부터 백리가량되는데 도로가절궤되여 교통은 전연끈허지고 경비전화가 유실되여 현재는 특사(特使)편으로 각주재소간의연락을취하고잇는중이다 그후조사한각면의 면별피해는 다음과갓다(칠일오전열한시재)

▲外南面
死者 七五名
家屋流失全壞 三〇八戶
罹災民 一一〇〇名
農作物 八割全滅

▲南西面
死者 一一名
負傷者 一九名
家屋流失全壞 七八戶
罹災民 三〇〇名
農作物 七割全滅

▲南山面
死者 九名
負傷者 六名
家屋流失全壞 八〇戶
同上浸水 六〇〇戶
罹災民 五〇〇名
農作物 七割全滅

▲水豐面
死者 三四名
負傷者 三名
家屋流失全壞 九九戶
農作物 九割全滅

도한수풍면과의 연락은 전연되지안코며 파명된것은 대녕강(大寧江)연안일부다

【朔州서金特派員發電】 유일오전 사진반을 대동한 기자는 위험을무릅쓰고 삭주수해지의 중심이된 대관시(大館市)까지 백리길이나 위험로를거러오후아홉시나되여 이재민들과 함께자게되엿다 이번의수해는 삭주군하 네면을 걸치전면적으로 삭주로서는 개벽이래 처음당하는 재변이라고한다 전호수의 할이상이 침수되고 이할이상의 인축사상이잇고 구할가량의 전답이 유실되여 가위전멸상태다 특히 참혹한 곳으로써는 외남면(外南面) 일대로 그중에남시(南市)는 팔십호 인가의 처마까지 열자식이나 침수가되여 사백여명 이재민을 학교기타 예배당가튼곳에 수용하고 썩은곡식으로 연명을 하는중이오 전시가는 흙탕으로 화하엿다 대관시는 송두리째 모양이변하엿다 이재민은 이틀과 며칠동안에 기아의경이 잇다 이재민구제방법은 면내유지들의 구제로 겨우연명중이며 귀성(龜城)읍내로부터 삭주읍내까지의도로는 거의유실이 되여언제복구될 가망도 업서 삭주읍내는 고립되여잇다

安奉線又復不通

豪雨로秋木莊、鷄冠山兩驛間서

安東驛은大混雜!

륙일오후부터 만주안봉선(安奉線)일대에 또비가와서 수해로 말미아마 추목장(秋木莊)계관산(鷄冠山)사이가 불통중임으로조선안철도선에서는 안동에서북지방으로가는 려객에대하야는 지체를 용인하는사람에게 한하야차표를팔기도 되엿다 그리고 안동서떠나 부산방면으로가는 렬차는모두 정각대로안동서 꾸며보내다고한다 안봉선의 불통으로 말미아마 방금안동현에서는 봉천방면으로가는 사백여명의 려객이 머물고 잇는터인데 려관이부족하야 큰혼잡을 이르키고잇다 철도국에서는 만주방면으로가는 려객은 칠일부터 경성이나평양에 하차식혀서 개통될때까지기다리도록하게되엿다

新義州又復暴雨

避亂者五千名

侵水家屋三千五百戶

【新義州支局電話】 평북지방의련일나리는 폭우로말미암아 압록강(鴨綠江)물은 칠일오전세시부터 갑작이 만히 붓기시작하야 이날오후세시에는 벌서오미돌구십에달하엿는데 확미돌에 달하면 신의주의 전시가도 아주위험한 상태에 빠지게된다 그래서경찰서 소방대 기타시민들은 총출동하야 방비에로력하고잇다 중지도(中之島)는 오백호가 침수되엿는데 피란민은 갈곳을몰라 울고부르짓고 잇는터이므로 경찰서에서는 푸로펠라선을타고 구제하려드러갓다 그러고신의주부 마전동(麻田洞) 미륵동(勒彌洞)에도 삼천호가 물에잠겻는데 피란민오천명은 제일제이공립보통학교에수용중이다 또부내하정(下町)운정(雲町)앵정정(櫻井町)에서도 일천호가 물에잠겻다 의주군 어적도(義州郡於赤島)도거의전멸상태에빠진모양인데 자세한정황을 알수업는터이므로 경비선이 현장으로 출동하엿스며 룡암포(龍岩浦)의 신도(新島)도위험한지경에 이르렀스므로 구호선이 현장으로 출동하엿다 비는 작구쏘다지고잇서서 이곳저곳에서 우는 소리가 작구들리며 처참한정경을이루고잇다

와가치홍행을하게되엿것이라고한다

鐵道局增員發令

철도국에서는 지난삼일에 사업확장에따라 관제개정(官制改定)으로 관리사백구십사명과 철도수(鐵道手)일백이십칠명의 증원을 하기로 되엿스므로 칠일에 그제일차의 증원발령(增員發令)을 하엿다 즉 서기일백열명 기수(技手)일백한명철도수오십오명 교유(敎諭)한명으로 합계이백륙십팔명이다 판임관(判任官)으로승격된사람가운데는 여자한명도끼엿는데이것으로써철도국에서여자판임관은세명으로된세음이라한다

日淸戰爭當時 軍人白骨을發掘

萬壽臺工事場에서

【平壤】 고구려시대(高句麗時代)의거대한 건축물의 유적이발견되여 고고학계를 놀라게하든도청신축 공사장인 만수대(萬壽臺)에서 이번에는 백골이만히 발굴되여 혹시범죄로인한 암장이나 안인가하여 세밀히 조사한결과 전부썩어버린 지갑과편지세종이 발견되엿는데 지갑속에는 아모것도 업섯스나 편지속에는

混成旅團 步兵二一聯隊第二隊
二…佐藤吉十樣侍 [illegible]安郡
春日村大字能島 佐藤八十郞拜
明治二十七年八月三日
野戰郵便局

의 글발이 읽을수잇게되엿다 군대단추가 발견된것을 보아 백골은 일청전쟁당년에 전사한 제국군인인것으로 추측되며 즉시평양헌병대에 신고햇스므로 계관이현장에 출장 납골을 하여 공양을하는일방발견된 편지를유일한 의뢰로본적지에조회를발햇다

헛電話헛불騷動

대낫장안거리에 이러난"태산명동서일필"그대로의 텐센스희제사건—일햇날 오후한시반경 부내적선정(積善町)백륙번지 아이스케익제조업 박진영(朴鎭英)의집에 불이낫다는 전화를바든 소방서에서는 떼어닌불에 긴장하야 소방자동차가 세네대쪼처갓스나 이것은 불이아니라 아이스케익만드는 기게에 부속되여잇는"안모니아·탕크"의 네지가빠저 안모니아가 나옴으로부근사람들이 눈코를 뜰수가업서주인이 전기회사에 전화로수선을 부탁한것이 잘못되여 소방서로 전화한것이 어화재소동의원인이엿다고한다

天氣豫報

槪況 颱風은 黃海와 揚子江附近에잇서서 거의 움지기지 안호며 其勢力은 만히 衰해젓다 高氣壓은 日本南海上에잇서 其先端은 北朝鮮까지 와잇스며 北滿도 氣壓이 낫하저잇다 滿洲는 흐리여 處處에 降雨가잇고 西北朝鮮에도 비가내린다 그리고 其他地方은 흐리기쉽다 日本內地도 흐리여 處處에 小雨가잇다

豫報 京城地方의 오늘밤과 來日은 흐리고 소낙비가 잇슬터이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三二度七
同 最低 二五度
今朝最低 二四度一
今日正午 二九度一

海州測候所開設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그예산까지 통과된 해주측후소(海州測候所)는사일부로서 인가되엿는데 그장소는 해주읍선산리(仙山里)로 개소에 대하야는 황해도(黃海道)당국에서이미 만단의준비를 정돈하얏슴으로 불일간정식으로 개소식을거행할터어라한다

義州에또豪雨

避難者가續出

附近의人心은恟恟

【義州支局特電】 련일폭주하는비는 칠일도끄치지안어서 각하천은각각으로 증수되어 약팔메돌이상에달하얏다 막사동(幕沙洞) 서호동(西湖洞)청전동(淸田洞)등지에잇는 주민들은 뒤를이어읍내로피난중인데 민심은 극도로 흉흉해젓다 지금도비는 계속하야 쏘다저서 강물은속속붓는중임으로 당국에서는 피난민수용준비를하고잇다

立秋

팔일은 음력칠월삼일로 립추(立秋)절이다 이때까지 맹위를 뽑내여오든 더위도 인저 한풀이 꺽기여 뒤로물러가고 바람이 새로롭게시작하게되엿다 한여름동안、무성하게자라든 오곡도열매를맷기시작하고 나무닙도 한두닙뚝뚝떠러저서 결실의가을 조락의 가을이 어느듯닥처왓것이다 수사이에 쓰르램이울고벼사이에 귀뚜람이울어 저놀한 바람은 교외(郊外)에마저 등화를 초가친(燈火稍可親)할때도 문아페 다아들어잇다 (사진은 익어가는 수수밧)

同棲拒絶하는妻를 칼로서亂刺

삼일밤열시경 부내효자정(孝子町)에서 두부장사하는 홍관호(洪寬鎬)(三)는 가회정(嘉會町)삼십번지의이호 문명수(文明洙)의집에서 식모노릇하고잇는 그의처박금홍(朴今紅)(三)이를 차저가 시비를하다가 식도로함부로찌르고도망질한것을 엿새날밤 종로서원이붓잡어다 취조한결과 그들은칠월초에 서로맛나 동거하다가 그를실혀하고 나가버린여자를 차저가 다시동거하기를 졸르다가 거절을당하자어

運動競技

朝鮮體育會主催의 水上競技大會

九月四、五日에開催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八回全朝鮮綜合競技水上大會는 來九月四日(午後一時)과五日(午後一時)의兩日間 京城運動場풀에서 擧行할터인바 同大會의規定은다음과갓다

競技種目‖▲自由型 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平泳二百米、四百米、▲背泳百米、二百米▲繼泳 二百米、八百米、메드레(三百米)

申請期‖八月三十一日午後六時까지 鍾路一丁目朝鮮體育會事務所로

參加資格‖中等對抗競技에限함

本大會出場選手는 當該校長의在籍證明을要함

本大會出場選手는 各種目每校三人以內 一人二種目에限함

抽籤期日‖九月一日午後五時同會館內

參加金‖每團體金三圓

全滿都市對抗蹴球 間島팀連覇

【延吉】 第三回全滿洲都市對抗蹴球大會兼東洋大會 滿洲國代表選戰은 지난八月四日부터 新京南嶺球場에서開幕되엿는데 連二年制覇한 間島蹴球團은 第一日에哈爾賓軍을二對一、第二日에吉林軍을九對零、第三日에는 大連軍을三對零으로 모조리擊退하고 優勝하엿다 間島軍은 朝鮮人만으로 組織되엿는데 一行의陣容은 다음과갓다

▲部長‖山崎 ▲監督‖康恒潤 ▲코-취‖李惠逢 ▲選手‖尹甲壽、崔東賢、李枚鎬、金學泰、黃昌洙、鄭深逸、嚴泰春、廉泰萬、林日順、金勝浩、金東圭、崔基男、朴益煥、姜昌鉉

네오톤(NEOTONE)이夏季保健에適好한理由

世界的 強壯劑

夏節을當하면 病弱體는勿論 누구나淡白한 植物性食物을 取하게됨으로 體內에榮養供給이 不足하게되야 抵抗力이甚히弱하게됩니다。
特히呼吸器가 弱한사람에게는 第一만히 結核菌의 侵犯이무서웁고또한 胃腸粘膜의抵抗力이 弱하게될때는 傳染病菌의侵入을밧게됩니다。
네오톤은 體內에榮養을供給하야 呼吸器와 胃腸을強化함으로 特히夏期에 適好한強壯劑입니다。
(本劑를服用하실때에는 몬저 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요)

NEOTONE
네오톤

適應症
肺結核・神經衰弱・萎黃病・貧血症
腺病質・食慾不振・肋膜炎・産褥
急慢性氣管支加答兒・一般虛弱・榮養障碍・心臟疾患・病後恢復期

包裝 小瓶 中罐 大罐
(全國有名藥房販賣)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이야말로世界에자랑할 整髮料專門工場의所産

最高品質의純植物性

이品質 이特徵

메누마는普通포마-도와달라서 頭髮의漆黑美를살리기에最適한 九種의植物性原料를獨特한 調合과科學的操作으로 完製한새로운發見입니다 따라서 그粘調度、伸度、芳香及洗髮의 容易함은 다른포마-도에서 차즐수업는 메누마의特徵입니다

자랑할이効果

메누마는 또特異한 浸透性을가지고잇는故로 이것을愛用하면 頭皮及毛髮의 乾燥를막고 美髮에有害한비듬을업시하고 能히毛髮에 自然的인彈性과 健康的色澤을도읍고 더욱이 메누마가주는 整然한美髮은 氣分을爽快히하고 生活을明朗히하야 品性을美化식히고 個性美를살림니다

빗나는그躍進

이比類업는 메누마를 이러케도 低廉하게提供할수잇는것은全혀「良品廉價」를信條로하는 弊舖의大量製産에依해서만 可能한 快擧입니다 이것은 메누마가 日本全土는勿論이고 滿洲、支那、印度、南洋等의 海外에까지지도 汎用되고잇는所以입니다 敢히僉坐의愛用을勸奬합니다

001577

紳士의朝夕整髮에
洗髮前의손질하는대
외-부를하기前에
카-ㄹ을하기前에

東京 大阪 井田京榮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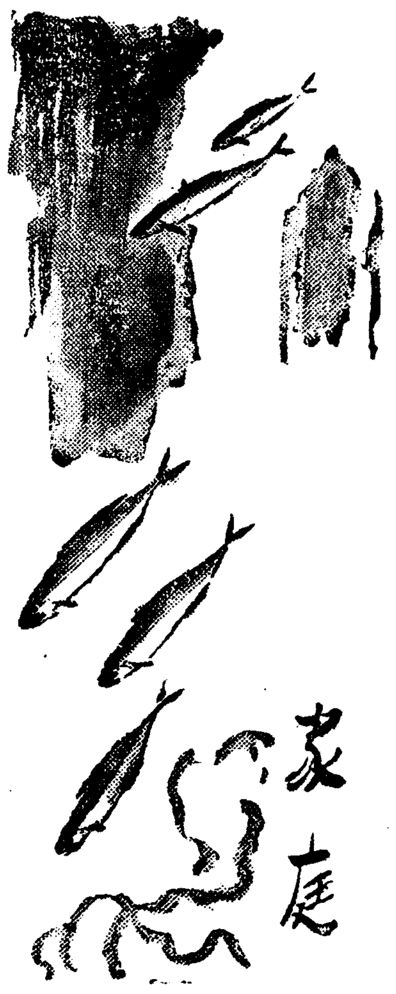
우리차지

모기ㅅ불

해가저무니까 수머잇든 모기들이 또「앵앵」하고 몰려든다。
아버지는 벌서여러차레 발ㅅ등을 철석철석 치섯다。
어머니는 애기가 물릴까바 부채질을 작구 하신다。이러는 동안에 누님이 모기ㅅ불을 노핫다。봐라 엇대。모기가다 다 라낫지。

(京城사람 최진수)

家庭



더위도 한고비를넘은셈 애기들의몸조심

생량이되면몸에도변조가생겨 큰애기공부와갓난애배두렁이

더위 더위해도 이제는더워도 한 고비를 넘어 서서 팔월이 엽추(立秋)요십일일이 말복(末伏)입니다。며칠뒤 부터는 적도 아침저녁으로 만흔 생량이 되야서 서늘한 바람을 쏘이게 될겁니다。그런데 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기 보담도 이 생량머리를 무사히 지나기가 어렵다고들하지 안습니까? 더구나 어린애기네、터터군다나 젓먹이 애기네야 한 층 더조심을 하지 안타가는 큰일을 내게 되지 안습니까?

우선 여름에는 거의발거숭이로 살다시피 하야 무엇을 입는대도 입으나 마나한 얇은 의복이엇을 것엽니다。한나제는 의연히 더우니까 그대로 그러케 입어 가지고 밤이나 새벽녘까지도 사뭇 그대로 두기가 쉽습니다。그러다가 감기가들거나 배탈이나지 안습니까? 삼복더위에 빼친몸에 배탈이 나노흐면 성할수 잇습니까? 배두렁이 가튼 것으로 배만 두른다는 것도 여름이야겟습니다。다리가 갑자기 차서 넙적다리의찬피가 배로 몰려도 역시병어 생기게 된답니다。

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식욕이 버쩍 댕겨서 무엇이나 먹으려고 덤비게 됩니다。식욕이나는것은 조치만은 나는대로 먹어다가는 관엽도 되고 어질도 되는것입니다。그뿐이 아니라 병균도 가을ㅅ바람을 딸아 버쩍 성해집니다 쇠약한 위장에 전염ㅅ병도 염려되지 언는것이 아니올시다。

그러고 몸어 번래 허약한 애기네들은 언제나 맑은 공기 충분한 해ㅅ볏도 영양분이 만흔 음식을 주는것이 필요합니다。여러가지 영양분중에도지방(脂肪)을 만히 섭취시키는것이절대로 필요합니다。조금선선하다고 공부가튼것을 엄콰시켜도 못씁니다。

생량머리를 잘 지내고나서 공부는 다 잡아도 과히 느즐것은 아니지요。

보리차보다는 속겨로끄린차

여름의 음료(飲料)로 맥차(麥茶)가 물론 조흡니다。찬물이나 어름에 시키어서 설탕이나 조금 타노면 애기네들도 잘 먹고 손님대접에도 훌륭합니다。그런데 실상 맥차보담 더 조흔것은 속게를 끄린것입니다。속게란 왕게를 다 벗긴뒤 나오는 고운 게인데 갈도 차고 맛도 구수하고 또비타민 삐가만허서각기예방이 됩니다。그 속게를생사혼겁에싸 가지고 끌는물에너허서 한참 울리어 냅니다。그래서는 맥차나 마찬가지로 어름이나 찬물에 채워서 시키어 가지고 설탕을 조금 타 노흐십니다。

빠질가바겁나고 병때문에겁이나 어떤바다ㅅ물이조흘까

더위 노호면 그저 가고 시픈것이 물까입니다。그래서 바다까 호수까 강까로 사람들이 몰리어 드는것이옳시다 그러나 물까란 얼마나 위험하단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빠저죽는것이 조심된다는것보담도 못된 병에 걸릴 우려가 업지 안타는 것입니다。인가가까운 강이나 호수는 말할것이 업고 바다까도 대개는 무수한세균(細菌)과 오예물(汚穢物)이 [illegible]는 것을 모르십니까 동경개신 석미정문(石尾正文)박사가 조사한바는 다음과가티 놀랍습니다。

×

해수욕장을 고르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1)바그로 널은 바다와통해 잇슬것
(2)강물이 합수되야 들어오는 곳으로 부터 멀리 떨어저 잇슬것
(3)시가지(市街地)에서 멀리 나와 잇슬것
(4)파도가 세지 안할것
(5)밋바닥이 평평해서 울퉁불퉁하지안할것
(6)교통이 편리할것

등인데 강물이 합수되는곳이나 시가지 가까운 곳은 개천물과 검부레기가 만히떠나려 오고 떨아서 물이 더러워 지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라고 볼 해수욕장의 물을 조사해 본즉 초산(硝酸)아초산(亞硝酸) 암모니아 대장균(大腸菌)가튼것이 발견되는동시에 물도 몹시 흐린것이사실입니다。아마 대장균은 그가까운도시로부터 떠나려온 것이거나해수욕하려온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추칙됩니다。

×

하여튼 그보담 좀더 대도시나 가깝고 강물과 합수되는 [illegible] 개소가 될것은 사실입니다。더구나 호수와 강물은 말할것이 업고 또 더구나 풀가튼것은 더다시 말 할것이업습니다。물에는 대장균을 위시해서 이질균 지부스균 드리돌균 결핵균 기타 가지각색의 피부병의 세균이 우글우글하고잇습니다。물이외에오햇는 곳가튼데도 변균이 결코 적지안습니다。

쇼우어 한줄금

색다른독일요리 "훙인라이스" 여름에만히들해먹습니다

닭을통채로 삶아서 맨든 색다른 저먼、라이스입니다。독일에서는「루ー베부라ー트」(월계수의어서귀)「무수카ー드」(머추가루)「세로리」의 뿌리가튼 향료를 만히처서 요리를맨듭니다만 정안에서는 어향료를 빼고해도 괜찬습니다。

재료=닭한마리 (삼분드가량되는놈)다마네기한개 세로리 팔밥쯘드 빼라ー사십그람 양밀가루약간、밀크크림 저으판의것의 바가량 계란노란자위하나 후추가루약간 만약 먼저 말한향료를 쓰다면 역시 약간

맨드는법 닭한마리를 통채로내장을 빼어버리고 쩌러기를 깨끄시한다음 다마네기잘개쓰는것과 세로리 향료、소금약친 뜨거운국물에너어 (국물은닭이 푹잠길정도로)양삼십분가량끌입니다。닭이열하면자미어엄습니다다。이 닭을물에서 오홉(五合)만데서 어롱로밥을짓고 남는이 물로작가량은 소ー스에씀니다。소ー스맨드는법은 빼라사십그람을 푸라이판에 녹이고 거기에 양밀가루를너허러지안케 풀기 위해서닭국물을 붓고도 밀크를붓고、그러고는 그남비를불에서내려노룬 뒤에계란노란자위를 너코를리 휘젓습니다。그리고는 무스카ー드와소금을약간처서 간을마친니다。

먹을때는=큰접시에 먼저닭밥을로지은밥을 담ㅅ고 닭은양쪽날개 양쪽다리 가슴패기에 칼질을해서끌은것을 제모양대로마추어가지고밥우에언습니다。그리고 토마도통근채로 썬것 파세리가튼것으로 참식해서내놋습니다 쏘ー스는 다른그릇에담어내노코밥에처가며먹습니다

거정꺼리되는 유선형미인

어것은 아메리카 젠트구립대학 체육교수(體育教授)의말슴입니다。

『요사이는 양전하고 참한미인은 도무지눈에 거들며보지도 안코 유선형(流線型)의미인이 굉장히 유행을하거든요 그것은 체육상 중대한 문제로서 최근의학교교육도 끈게가 잇지만은 그보담도 더만히 의복의 영향인것 갓구먼요。근래의 색시들은 스타일을 해마다 바꾸어 입는다고 해도 겨지반 유선형에서 버서나지 안코니까요 옷이 그래 노니까 몸도차차 그러케 변하는지모르지요。

한참은 서반아내란때문에군국주의의 의복이 유행하더니 언제인지 그만 쑥 들어가고 전부유선형뿐이러군이요。그것 참 건강상적지안흔 문제인데요』

최신식광고술

어떠케 해서 광고를 잘할까 하는 것은 어디나 장사치들이 밤잠을 못 자고 생각하는 문제—요사이 서양서는아주 재미잇는 펑고가 생기어 낫는데 그것은 거울이 말하는것이랍니다。 죽 거울며페 확성기(擴聲機)를 부치고 또 그속에 소리가나는 필림을 걸어 노하서 사람이그아프로 가기만 하면 그몸으로부터 나오는 전기때문에 그필림이 돌아가면서 확성기에서 말이 나오는것입니다。그것도 말이 너무 길어서는지리 하잔아닙니까 그러키에겨우 삼분에 고만 다해버린다고요。

소년빵제조업자

미국에서 겨우열네살 먹은 아이가 빵을 제조해서 흥정을 하고 잇다는 이야기—월리암·손븐·부라운이라는 소년은 어려서부러 다른 아이들은 뛰어 다니며작난을 치는데도 늘 혼자 부엌에 들어 안저 시중을 드는 참한 아이엇습니다。그러다가 삼년전 그 어머니가돌아 가신 뒤 그 누님을 도와서 술집을 하고 잇는 중 빵을 굴는 법을 배우게 되엿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저혼자 점포를 내고 장사를 하기로한 것이지요 게절이는 낼부터는 님이 만히 와서 장사가 점점 늘어가고 잇스니까 그소년은 지금 기고만장(氣高萬丈)이라고요。

第2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九月十七日至廿六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入選作品中에서 左記一級의入賞作品을決定하야 正賞으로賞狀을授與하는外에 또 所定의副賞이잇슴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副賞 十圓
特別褒賞(朝鮮日報社長賞)
百圓 各部各科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認하는作品一點에對해서 本社社長이授與함

申請及搬入——場所는本社事業部期日은 自九月十日 至十日間搬入할일
出品規定——本社所定의申請書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야 作品과함께前記搬入場所로搬出할것이며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 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目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明記할일 (規定에違反된것은不受理)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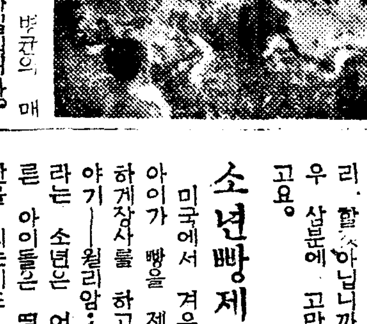
연근의나이

연근은 대개 세마디나 네마디로 되야 잇는데 그한마디 한마디가 한해만큼씩 자라는 것입니다。그런데 가느다랄수록 해가묵은 마디로새마디가 제일조습니다。

가느다란 마디는 좋질기고영양분도 업스니 보통조리어먹는데는 그러것도 무방하고점과가튼데는 굵은마디라야 합니다。한개의 연근으로도그러한차이가 나는것입니다。

먼지가몸시끼인 유화(油畫)닥기

벽우에 결어논 유화(油畫)는 오래ㅅ동안 몬지가 안저서고만 원빛갈을 일허버리게 되는수가 만흐니까 일년에 한두차례 씻어 내야하지만은휘발유(揮發油)나 기타의 기름의 기름으로다가 씻어서는고만 그림을 버리게 될이오줌이나 해면(海綿)에 물을묵히어서 귀찬터라도 여러번 씻고도젓어내야 합니다 알콜은조금은 무방합니다



長篇小說 찔레꽃 【96】

金末峰作 金熊超畫

영혼의시장(七)

영혼의시장 七

『아버지! 결혼이란게 인생에게 그리큰 일입니까?』

하고 경구는 그것이런는 호흡을 억지로 진정하여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앗다。

『응 그러라 첫째 독신으로잇는사람을 사회는 잘신임하지안코 러드는법이니까…사실나도 말이다 독신으로 잇는 너에게 십만원이나되는 큰돈을 내맥기기는…좀 불안하단말야』

『……그야 저도 큰돈을 바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이상 그만한 풀랜을 가지고잇스니까요 그돈 십만원 가운데서 절반을 가지고 사겟습니다 제가 올리는가운데도 쓰여잇습니다 만 강원도 ××군의 림돈임야(林野)의 일부를 위선 손에너키로 하얏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그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의 일년생활비와 그리고 비료와 기구를 제공하고 필요에따라 작인에게 주택도 제공하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회 십만원을 제가 낸뒤에는 제동지들가운데서 제이차의 십만원이 나올겝니다。

제삼 제사、이러케해서 우리들은 십년안에 백만원자금을 모아보려고 생각하고 잇스니깐요……아버지 제가 하는일을 미더주십시요 그리고 경우에따라 아버지께서 친히 지도를 해주시면 더욱 저이들은——』

『얘 구경아』

조두취는 아들의 말이 채마치기도전에 그는 자리에서 벌덕이러서며

『그 꿈가튼소린 작작하고 어서 결혼준비나 하도록해라김영백씨댁 규수에겐 너도 노상 말이 업지안흔줄은 나도 짐작을 하고잇스니까……』

하고 두취는 어둘전에 아들경구의 이름으로 배달된 편지를 개봉한채 테ー블우로 내여던진다。

『그럼 아버지 십만원돈은 못주시겟단 말슴입니까』

아버지를 똑바로 처어다보는경구의눈에는 초조와 원망의 비처 번득엿다。

『응 그러타 못주겟다 첫째로 난 네가 무슨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드를수가 업단말야 젊은애들이 부모를 맛드려집안이나 잘다스려갈 생각을아니하고 건달구는 수작들이나 말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프면 아、현저청이나 청연정이나 아니 위선 종로만 나가도 거지들이 수두룩한걸 공연히 강원도 ××군까지 갈것은 뭐냐말야』

하고 벙그레웃는 조두취의 얼굴은 확실히 조롱과모멸로 빗두러지는듯하엿다。

테ー블우에 언친 경구의한손이 전등아래서 바르르 떨리는 것이보이자

『너 공연히 흥분하면 안된다 함흥은 너보다 못할지는몰른다 하지만 돈의처급에잇서서는 내가 너보다 단연코 나을게다』

경구는 더참을수업는듯이 자리에서 벌덕이러서며

『알엇습니다 아버지를 이러케까지 무신경하게 만들어버린 그돈을 저는 저주하고십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인격을 의심하게만드는 돈이란마물(魔物)에대하여 저는 침뱃고십습니다』

경구는 뚜벅 뚜벅 발소리를내면서복도로 뛰어나왓다。

그는 주먹으로 눈물을씻스며 식당으로 끄부라진복도로 드러서라할지음 현관에서 초인종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왓다。

경구는 얼른 손수건으로 얼굴울닥고 현관으로 달려가보니 과연 오늘저녁에 오겟다고약속한동지들이 두엇 벙그래우스며 손을내민다。

경구는 저녁도 먹지안흔채손님들을 대리고 어칭자기방으로 갓다。

여덟시까지 경구의방에는 모두아홉사람의 손님이모엿다 갑비싼외투와 모자들이 수북이경구의 테ー블우에 아무러케나쌰엿다。

그중에는 경구와 죽마고우도잇고 더러는중학 홍은대학에서 친히알게된 사람들이다。그들은모두 경구를 기인여옥(其人如玉)으로 생각하며 오는터이다。이저녁에도 경구를 향하며 옥인(玉人) 옥인하고 별호처럼 불르는 사람도 잇다。

사람들은 자리에 들러안저 담배도피우고 잡지도 뒤적어리고 한참동안 방안은 이야기소리와 우슴소리로 떠들석하엿다。

『똑똑 똑똑』

녹크하는소리에 경구가 얼른문을열고 내다보앗다。

과자와 과일들담은 그릇을 두손에 들고잇는 경애뒤에 차그릇을 그득이담은 쟁반을안고 정순이가 서잇는것이 눈에띄이자 경구는 얼른 손을내밀어 정순의 안고잇는 무거운듯한 쟁반을번저바덧다。

경애는 사람들이 보지안는사이에 오빠를향하여 살작눈을 흘겨보이고 과자그릇을 안은채 방으로 드러섯다。

진한자주빗 방운독을 입은 경애는 잘핀 따리아처럼 실내의기분을 밝고향기롭게 만들엇다。

『안드러오십니까?』

하고 경구는 정순을 드려오라하고 박글내다보앗스나 어느사이 정순은 아래층으로 내려간 모양이다。

경애가 손님들에게 과자와과일접시를 돌리는것을보고 경구는 박그로나왓다。그는 바브게정순의방으로가서 녹크를하엿다。

방금 다울에다 손을닥고 서서잇는 정순의 뒤로가서

『안선생님!』

하고 살그머니 그의어깨가까이 다어섯다。

『가십시다네? 경애혼자서는좀 어색할것 갓기도하고……가치 가서요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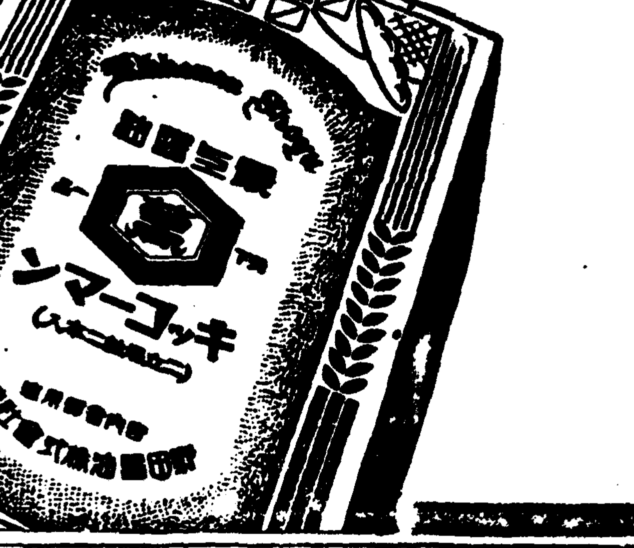
한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정순울 내려다보는 경구의눈은타는듯 빗나고잇다。

キッコーマンソース (깃고ー만소ー수)

12-G-2

天下一品

御贈答には (에는)
キッコーマン醬油 (깃고ー만)
二리ットル壜・二本入
化粧木函
을利用하십시오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文化의特殊性과一般性

—그것의成立過程에對한解明—

❶ 李淸源

近來에 일으킨 여러가지 領域에서 朝鮮의 過去와 現實을 알려고하는 機運은 굉장히 進展되고잇다。그리하여 朝鮮을알자고하는소리와가티

朝鮮의 特殊性의 闡明에 對한 부르지즘도 刻신 노파지고잇다。그리고 이것을 論議하기 爲하여서의 一連의 具體的인 成果가 나타내고잇는것 갓다。그러나 이成果의 大部分은 朝鮮의 過去와 現實에 對한 그릇된 認識을 規準으로 問題가 評價되고 展開되고잇다。勿論 우리는 朝鮮의 特殊性에 對하야서는 조금도 서슴지안코 如何한 保留도업시 大體를 承認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데까지든지 世界史的合法則性우에서의 特殊性이지 世界史的一般合法則性과 反立되는 固有의 絶對的인 特殊性은아니다。어 兩者는 決코 相反하는것이아니고 一般性에잇서서의 特殊性、特殊性에 잇서서의 一般性만이 問題를 正當히 解決하는것이다。

方今 歐洲의 天地에서는 文化的바바리즘의 攻勢아래서 數만흔 人類의 빗나는 先驅者들이 自己들의 文化的傳統의擁護를 부르짓고잇스며 따라서 이것을 全世界의 良心的인 人士들께 呼訴하고잇다

勿論文化는 擁護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偉大한 歷史的發展이업는 卽우리들의 歷史的知慧라고하는것의實證的資料가 缺如되고잇는 이땅의 歷史的現實、偉大한 歷史的發展의 地上的土壤、現實的地盤이 缺如되고잇는이땅의 歷史的條件아래에잇서서는 歐洲와가튼 論理로서 文化的傳統의 擁護乃至死守를부르짓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큰잘못이다。

그럼으로이와가튼 問題에對한 正當한 理解를 確保하기爲하여서는 우리는무엇보담도 朝鮮文化와 特殊性에對한 闡明이 切實히 要求되는것이다。

二

歷史的으로 制限된社會가 社會學에서 일은바 利益社會라고한다면은 治者群은 自己手中에 公力(게발트)을 가지고잇는者로서 이社會의 代表者이기때문에 다시말하면 그들은 階級으로서 治配하며 또歷史的一時代의

全範圍를 決定하는限 그들은 그治配와 決定과를 自己들의 힘자라는데 까지의全範圍에일으러行하는것이다。하야서말하면은 治者群은 그社會에잇서서 展開되는 人間活動에對하여 一面에잇서서는 自己의治配의 確立때문에 他方에잇서서는 被治配群의 反抗를緘定시키기爲하여서는 一定한型을더욱이나社會 그것이名稱아래에서 要求하는必然과 便宜를가지고잇는것이다。다시말하면 文化는그무슨形態로든지 그當時의 治配群의 利益때문에 統制되고、으로써 存在하는同時에 또이와가티 統制되는것으로서 被治配群을統制하는 使命을가지고잇는것이다。그럼으로 問題는 社會學上에서말하는 利益社會에 關한限 一切의文化는 社會的性格을가지고잇는것이다。그런데 文化를統制하는社會의 指導群에 잇서서는 當該社會는 自己의 것이며 그럼으로 그들은 自己들의 利益을 社會全體의 利益으로서表明하기때문에 文化는그性格에잇서서求人的으로되고

自己의 階級的特殊性을 內的으로 對外的으로 主張하며要求하는傾向을 自己스스로 指示하지안흘수업는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와가튼 文化의統制그것이 그들의 個性 或은 期待 企圖의如何를不拘하고 그基本線을 좃고잇는것은 今日에잇어서는 그누구나다 承認하는바와가티 當該社會의基本構造 그것이라고하는것은 조금도 疑問이업는것이다。文化의絶對的特殊性의 要求에도不拘하고 社會發展의 一般的合法則性은 文化를 그具體的特殊性에잇서서 規定하면서 이當該社會의 映像으로써의 文化의 生成發展消滅을通하여 社會의文明의보담高度의노픈階段으로 進展되는것이다。다시말하면은 文化라는것은 結局生産諸關係의 性質과 그우에서는 經濟的構成과 分離되여서 獨立하여 그의基本構造와 關係가업는것은 아니다。그것은 以上에서 數次强調한바와가티 文明이라고하는 全過程的 觀點에서본다면은 한個의階段的 現象으로서의文化의 性質은 結局當該社會의 基本構造의性格이 決定한다는것이다。

우리가 以上에서 數次文化의 意味와 그것을規定한것은 다름이아니라 朝鮮文化의 特殊性을歷史的發展에잇서서 科學的觀點에서 正當히把握하기爲하여서는무엇보담도 文化自體에對한 똑발은 理解를 獲得하지안흐면 안되기때문이다。

開闢의三姓穴跡

—俗稱『멍굴』에對한臆測—

⑧ 李殷相

神殿을 물리나와 庭前에서 니樹林속에새소리조차 閑暇하야 어느덧마음이 太古의아득한뜻을 먹음는듯하다 잠잔 지나가는 나그네의 마음이 오히려 이러하거늘 외로운 이섬에서 始祖밧고 生을 누리는 三姓後裔의 州士들이야 어찌理論的의 感銘이 여북하겟느냐。

三姓祠의 事蹟을뒤저 中宗時의 牧使 李壽童이 築壇立石한事實이며 肅宗丁丑에 牧使柳漢明이 廣壇을築하고 神室을 改建하엿던것과 壬午에 牧使李衛相이 東城안으로 移建하엿다가 正宗乙巳에 州士梁擎天의 上言으로 賜額을밧고、春秋에 香祝을나려 致祭한것等許多한經路는 다그만두고高宗辛未에 國令으로 院宇毁撤로써 穴壇가까이 再建케됨것이 只今現存한 이三姓祠인것을생각하매 崇祖心의一端이어떠케나 또겁고 갸륵한지를 알수가 잇섯다。

子孫이 苦生스러울때 한아비를 생각할때 잇스려니와、子孫이 孤獨할때에 한아비를 崇慕함이 어찌 그릇된 일이겟느냐。

아무래도 저祖鄕、저傳說지럼 보배로운것이업는니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밟음을옮겨 『穴壇』안으로 들어서니 前面에는 三姓穴이라 체한 古碑가 서잇고 그뒤에는 二十餘本의 石柱를세우고 鐵索을 둘러친 約二十餘坪쯤되는 穴壇이잇다。

全面이 옥어진 풀밭인데、三穴의 穴跡이 品字形으로 되어잇스며 西側에는 高厚 高淸 高季 三民弟를 埋安한石碑가서잇다。

이三姓穴은 良高夫三神人이 처음에 땅으로부터 솟아낫다는 發祥地로서 此島 住民의 信仰을 밧고잇는곳이다。

이三姓穴은 諸文獻에『毛興穴』이라 적히어잇거니와 耽羅紀에는 毛字의 字形이 乙字우에 三字를 加한것으로볼수잇스므로 三乙那의 일어난 곳이매『毛興』이라하엿다 하엿스나 毋論 이것은 字體에 拘泥되어 말하는 附會에 不過하다。

그런데 여기 가튼種類의說이라고 볼수는잇으나 多少頗聽할만한것은 白湖林悌氏의『毛興穴辯』이다。

그說의大意는 本是 毛興穴은 毛(모)字가아니라毛(삼)字이엇다 毛字가 後代에毛字로 繼하야 그대로 記錄된것이아닐까 漢字의 濫觴로 볼만한 康熙字典에依하면 毛字가 그대로 남아잇다 毛字 同韻에 …(海篇)毛 部俾名、上部神本、下部神…人呼爲…轉發篇…云云이라하엿다 그러므로 毛興은原來 毛興이든것이 後代에와서 古字의 消失과함께 近似字인 毛興으로 讀寫訛稱케된것이리라는것이다

毋論 이것도 毛이란 古字가잇고 또그것이 三의뜻이자 字體가 毛字와 …으로그 가리 解得 聲韻…하겟으나 나는 亦是 여기에도 首肯치아니한다。

그것이 毛興이든 毛興이든間에 原則的으로 漢字의 音譯에서만 論辯될일이지 이毛興은 本是朝鮮語의 吏讀字일것이매 어디까지나 朝鮮語音에서 그原義를 求할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現在로 濟州住民은 老少男女업시 이三姓穴을『멍굴』이라고부르는것을 絶對로 參考할必要가 잇스려니와 이『멍굴』이란 音을가지고 或者는『蒙古人의穴居處』라고 解釋하는이까지 잇어온만콤『멍굴』이란俗稱은 오래前부터傳하여오는것임도 事實이다。

그러면 이『멍굴』이란 意味는 무엇이겟느냐。여기잇서서 學究的引證은 미처그겨를 準備가 업거니와、爲先 나의臆斷으로는『구멍』이란말의 略語나 訛語이라고생각한다。

毛興의 合音인『멍』은『구멍』의義요 穴은 다시 그것을 漢字로表示해노흔 添付字인데 그것을또『굴』이라 새김해노흔것이리라。이런 等屬의例는 朝鮮의地名에『재』와『嶺』이 꼭가튼것임에도不拘하고『재嶺』을 부처말하는例와가튼것이다。

그러므로 毛興穴이란것은 어렵게 解釋할것이아니라 다만 太古人들이『구멍』이라고 부르든것이리라고 생각하거니와 이것도 亦是나個人의 臆測에不過한것임은 毋論이다。

(寫眞은 三姓穴)

錬金帳

스포-츠와論爭

柏木兒

사람을 때려서 피가나고 멍이들고、昏倒를시키거나심하면 죽게까지해야 이긴것으로치는 拳鬪를競技라고해서 奬勵하는 이세상에 아무리 十字의 일이라고해도 論爭도 싸움인以上 論敵의 人身攻擊쯤하는것이 그러케 허물될것은업슬것이다。

그러나 拳鬪에도 스포-츠精神이란 것이 따로잇다고하니 論爭에 批評의精神은 스포-츠精神보담은 좀더高尙해도될 것이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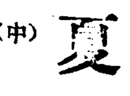
스포-츠精神이란 相對者를 陰謀譎計로 넘어트리지 안는것일뿐이지 觀衆에게는 興味만잇게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批評의精神이란 感情이 激越했슬때 相對者를 攻擊하는것은 허물될것이업드래도 그攻擊에서 나오는 論理의 進展은 相對者를 啓蒙시키는것보담 客觀的으로 第三者에게 무엇을寄與하는 바가잇는데 비로서 論爭의 存在理由가잇는것이다。

그러나 近日某氏가 쓰는 書信體의 論文을보면 첫째 論爭의對象이 分明치안타。그內情을아는 사람으로서본다면 누구에게하는말이라는 것이 짐작되기는하나 平凡하게보면 作家에게 보내는 편지라고햇스나 그作家라는 것이 누구라고밧아잇지안흐니까 作家들로서 본다면 모두내한테하는말이아닌가하게 스리 不快感을 자아낼 一種의威嚇的文字이다。게다가 中間에가다가『이것은 君이 알는지 모를說明이지마는칸트라는 哲學者가…云云』하엿스니 아무리 無識한作家기로서니 칸트가 哲學者인 줄 몰라서 인제 칸트라는 哲學者가하는말에 啓蒙되지는안흘것이다。더구나 이論文의 筆者가 哲學科出身이라는데 이語句의 뉴안스는 더한층 濃度를 가지는것이니 만약 이 論文의反駁을쓰는作家가『獨스피어』라는文學者가』云云한다면 그光景을보는 讀者는 噴飯할것인가? 顰蹙할것인가?

☆ ☆ ☆ ☆ ☆

::隨·筆::



盛夏三題 (中)

鄭槿陽

凍結사나토리엄

더위는 바야흐로 그絶頂에가 루노혓다。참으로 견디기 어려울지경이다。그리하야 都會人들은 어떠케하엿스면 이무서운더위를 避할가를 생각한다。

산으로 바다로 所謂避暑客들은 도망을가는것이다。都會에서 떠날수업는사람은 電氣扇채에서 나오는 무더운바람을 쏘이거나 또는『아이스케익』이라는 季節의 寵兒를 돌업시사랑하게 되고말엇다。도하나 우리는 그럴듯한街頭納涼法을 본다。녹일듯이 나려쪼이든 저太陽이 자최를감추면 그래도 선선한바람이 부러온다。저녁이다。그리고여름의저녁은 곳밤이다 밤이면자야 하겟다。來日을爲하야。그러나오막사리 한間방에 여러食口가 기를 가티할수밧게업는 게다가 빈대라는 기특지안흔 種族과도 동무하지 안흘수업는 可憐한우리네는 그가운데서 한여름밤의단꿈을 꿀수는업는것이다。이러하야 그들은 街頭로進出한다。이러한 무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수잇다。四方이툭터진 素空아래 네활개를 쫙펴고 참으로自由스러히누은 그姿態는 여름철의 特異한 現象의 하나이것다 나도 이納涼法은 꼭한번 實施해볼 作定이다。

좀 모던性을 띤 紳士분네들은 一錢짜리『아이스케잌』代身에 十五錢짜리 어름커피-나어름茶를 마시고 다닌다。그러나 거리를쏘이는 炎陽은 마신茶를 모아서 땀으로 빼꾸어내고만다 그들의茶마시는 納涼法은 그들의 마누라나 어머니의 內衣빠는努力을 培加시키는 效力바게는 즐길이업다。그런데 어떠親舊하나이 이런이야기를 한적이잇다。茶房에서 적어도 여름철만은 잔茶를 팔지말고 마치水道局에서 호-스를부더 水道를 집집에 끌듯이 各테-블에 活栓設備를 베푸러노코 任意대로 茶를 마시게하고 메-터-制로써 料金을 徵收하라는 것이라 게다가 길게 누어서 호-스를 입에물고 連나라 마시게한다면 上之上이라고 한다。尖端을 자랑하는 모던都市京城에 이러한 茶房이 不遠間생길른지도 모르겟다。

그런데 무시무시한納涼法이잇스니 紹介하기로하자『에진트』의 피라밋드속에 기나긴歲月동안 잠자고잇든 꼭식의種子를溫度를 適當히하고 水分을 供給하엿드니 눈을이 싹을냇다고傳한다。이것은 그種子가 凍結의 狀態로 오래동안 生活을 停止하고잇든것이 周圍의 適當한生活條件이 賦與됨을 따러 다시금 生命力을 復活햇다고 解釋할수박게 업다。

요러한것을 사람에도 適用한다는 말이다。더운 여름철에는 이『凍結사나토리움』을차저 몸을엽리고 一時生活에서 逃避하엿다가 선선한바람이 일기시작하는 가을철을當하야 蘇生하야 娑婆로 다시금 도라온다는 말이다 이 얼마나 奇拔한 避暑法이냐 이러한『凍結사나토리움』은 더 큰利用價値가 잇슬게다。우리가 빗에졸릴때 生活의倦怠를 늣길때。一時 生活을廢止하엿다가다시 좃흔條件이 우리를 차저올때 蘇生해 나오는것이다。이럴世上에 잇서서는 自殺行爲는훨시도 줄어들것이다。自殺이란一時的苦悶을 못이김으로 이러나는 社會現象이기때문이다。우리들은 이러한 유토피아도 想像할수잇슬른지 모르것다。

우리는 도한가지 가장現實的인 納涼法을 본다。땀을 흘리는것이다。땀을·흘리며 일하는것이다。水分이 蒸發하야 水蒸氣가 될때에는 氣化熱을 要한다。

우리몸에 땀이나면 땀은 水蒸氣가되여 날러간낭 이때우리 몸에서 氣化熱을 빼앗는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선한 느낌을 밧는다。

하로終日도록 말 그대로의구슬땀을 흘리며일하는 저農夫들이 夕陽에 愁心歌와 가티 논두렁을 걷는양은 보는사람으로하야금 참으로 涼味百%을聯想시키기에 充分하지만는 그들이 느끼는 그서느러움은 참으로 그들이 흘린 땀의 선물이 아닐수업다。

山으로 바다로 輕快히 발을 옴길만한 時間과 經濟의餘裕를 입지못하는 무리들이여!그대들들은 맛당히 땀을 흘릴지어다 그리하야 뒤에올 凉氣를 기다리라!

全朝鮮男女音樂콩쿨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參加資格　全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二圓과 伴奏料一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交附함(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申請金을 一切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賞 賞金을 授與함

曲目　二曲을演奏하되 一曲은 本會指定曲을取하고 一曲은隨意로함

【聲樂】 DER WANDERER (放浪者) ―(슈벨트)―(男聲)
AVE MARIA (아베·마리아) ―(슈벨트)―(女聲)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4 (作品九〇) ―(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8 E LA MAJOR 第一樂章 ―로―데

【審査員】
金永煥·洪蘭坡
朴慶浩·玄濟明
桂貞植·金元福
鄭勳謨·朴泰俊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健康의退潮

—文學閑談中에서— (上)

安含光

사람에게 서글픈情緖를 자아내게하는것이 어찌 한두가지에 끄치랴만은 人間이 健康에對한 自信을 喪失하게되는瞬間에늣기는 서글픈情緖란것은 참으로悲劇의 絶頂이어서 往往히 우리의華을 잇바디모를 憂鬱과 絶望的인 無感覺의 境地에까지 案內하는수가잇다。

이런때면 依例히 運命의女神은 반과가튼鄙陋가운데서 灰暗의不吉한言辭를 擲呈하는것이어니와 나는 最近 이러한 鄙陋한心情에對하여 하나의 堅實한 防禦線을 架設할수업는 自身의 無準備性을 限업시 슯어한다。

이슬픔은 마침내 精神的인彈力의 一破片까지라도 아서버리고마는細音인지 四肢는 느러질대로 느러저 나는 엇저는수업시 장판방에 번듯이 누어버리기가 일수다。장판방에 번듯이 누어버린 나에게 許諾되여지는 하나의 그무슨일이잇다고 하면 기껏해야 無辜한 마코-멘개를 刑罰할 殘忍(?)한 演劇的度의것일게다。

하나 대번에 마코-멘대를피워버린다고해서 이것이 決코나의憂鬱에對하여 講和條約을 매저줄理는 萬無하다。

憂鬱은 마침내 업치고덥치어 溫瀾할을 그의 唯一한자랑으로 하여야할 젊은 精神은 멋업시도 하나의 古色蒼然한岩石우에 膠着되여버리지를 안는가! 情熱의 焦燥라든가 懊惱의 過剩이라든가 不安의 精神이라고하는것들도 實狀인즉 그어떤貴極的인 意慾에 沐하여 律動되는心臟을가젓고 貫流되는精神을 가젓섯것만은 이生理的인 不健康아페서는 그모두가 自身의憂訴를 스스로 抛棄해버리는 하나의 深刻한悲劇만이 演出되다 이리하야 健康의退潮로부터밧는 서글픈 情緖한 때로 野人의感觸과가티 거세어고 때로狀女의嬌笑와가티 憂鬱하게 靑春이 아! 健康이 그리웁고나!어 心臟的이부르지즘은 最近에와서 加一層 切實味를 加한다。

하나 그러타고해서 나는 決코 愚鈍한山도야지의 健康을부러워하는 배도아니며『鈍感』을 모르는 物慾의象徵일러인 돈롱보라든가 高慢한表情을 거룩을 모르는 기름기질질한 豚者들의 血色에 或種의魅力을 늣긴다는 것도아니다。

그러나 人間은 母體에서 胎動할때부터 氣志의王者될 天賦의 權利를 가젓섯슬것이며 그意志의目標까지의行程은 人類에게질머지워진바 하나의 十字架的義務이라할진댄 그義務를貫徹할 努力의基盤──生理的健康가 어찌 그리웁지 안흘젠가!!

그러타!生物的인 享樂을위한 健康의 健康을 葬送하는代身에 思想과行爲가 恒常 生物的인호름에對한 抗議에서 昇華되고 人類의良心을 代辯하는데서 天賦의十字架的義務를 다(蕪)할 健康이 그리울뿐이다。머리는蒼空을向하야 넓고맑은 理想을抱懷하고 健脚은大地에 立脚하야 堂堂히 汚濁의구렁이를 超克할수잇는 健康 아니 그러하기에만 밧(受)게될 모─든 迫害와 嘲笑의챗죽을 돌코나아갈 그런種類의 健康이 그리울뿐이다。

『나에게는 돈을 가질權利가잇다。나의 思想이 昇華되기위하여는 돈이 必要하기때문에』라고웨친 리라당의絶叫는 보담根源的이고 보담 本質的인意義를 가지고잇거니와 이에準하야『나에게는 健康을 享有할權利가잇다 나의思想이 昇華되기위하여는 健康이 必要하기때문에』라는것은 어찌 나一個人만의 心境일것이냐??

最近 우리文壇이 喪失한 두개의 才氣煥發든 作家 李箱과 金裕貞이가 우선 이말에는 地下에서 손들어 共鳴할것이다。

아니 現存한 役軍들가운데에도 果然 이러한心境과 담(蟬壁)을쌀수잇는 眞實로 惠澤바든친구가 멧名이나 되겟는가를 생각코 나는 또 憂鬱을放送하지안흘수업다。

나의 不健康、그도 생각하자면 生活의 無理가 招致한 하나의 반갑지안흔 賭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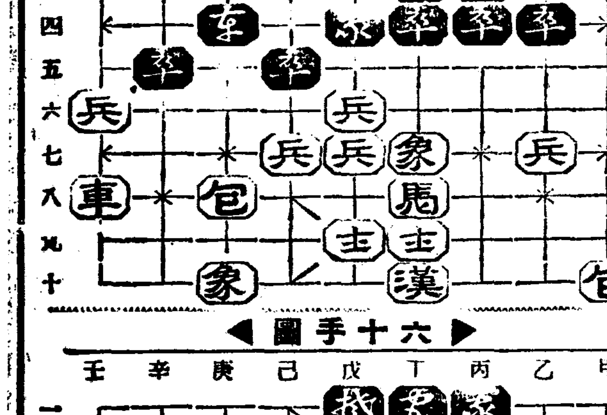
어째서 生活의 無理를 하지안허서는 아니되엿스며 또 揚棄하지못하고잇는가(?)라는 격정을망 아이여 表示하지말어다우! 그런 質問의 親切은 밧기도 실키니와 나亦 이야기할 興味、아니 興味라기보다는 氣力조차 업서저버렷다。

다만 靑年前半期를 靑銅과가튼忍耐 岩石과가튼은 元氣를갓고、困難하고 無力하고 또 매마른苦鬪氣가운데서 生活한勤章으로는 精神的인變態과 肉體的인退潮가 賭物되여젓을 따름이라는것만을 이야기해두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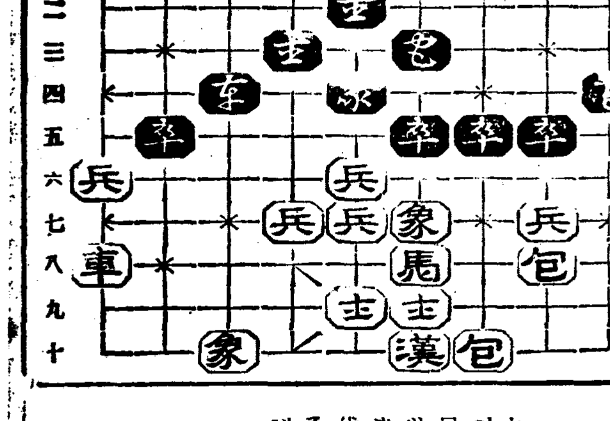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六)

漢先手 李在鳳　楚 許鏞

第十五手圖



第十六手圖



甲十包─己卆　丁四馬─丁五　己卆包─己五打卒　丙四馬─丙五　己包─己卆

乙四馬─乙五　己卆包─丙卆　丙三兵─甲四　庚六包─乙六　己八─己五

煩悶即時解決

近代의文化가産出한

補精盛陽劑의大發見

킹·오푸·킹스

恨嘆하든不感은永久히消滅되며

强大한精力은期待대로湧出한다

男子며는 그누구나 꼭生覺해 볼일이다

우리의人類가 地球上에生存하야 生活해나가는가운데에서 萬一性慾을 無視한다면 그것은 人類의進步를害치는것이요 發展을막는것이며 또는男子로서 人生本能의慾望이 어떠한病的原因으로 마음과뜻대로되지안어 目的을達치못하게되엇다면 그것은自己一人의不幸은 勿論이어니와 社會構成上에잇서서도 一分子로서의 責任을다하지못한다고볼수잇스니 男女間의性生活에對하야 그엇지소홀히 생각할일이리요。

그러므로 밧그로나서서는 튼튼한體質과 强한精力으로 勇躍活動하야 남에게뒤떠러지지안케하는同時에 안으로드러가서는 熱烈한愛撫心과絶大한情慾으로 女性을征服하야 自己의價値를 堂堂히發揮하는것이男子의本懷일것이다 그러하니 조금이라도不快와不滿을 自覺하는者는 熟考三省하야速히 回復될方針을 힘쓰는것이 結局은自己의幸福이며社會의義務로生覺하노라。

킹스는科學의産物이다

文化는 날로날로進步하야 如何한原因을 勿論하고 날카로운科學의메쓰로 한번만解剖하면 그正體를暴露식히지못함이 업는것은 군소리할必要도업거니와 더욱이 人體에關한醫學藥學上에이르러서는 一驚할만치極度로發達되여잇슴은 누구나 肯定하는事實이다『킹·오푸·킹스』도 日本은勿論 獨逸서까지라도 性慾學에는第一人者로 權威의名聲을밧고잇슬뿐外라 性에對한論文으로서 日獨兩國의 醫學博士가된 羽太銳治先生이 男子가一生에 成功不成功과 幸不幸의岐路는 오직 性慾强弱如何에 잇다는結論을 엇고 萬若산치라도 거짓과虛僞이업는 理路整然한科學下에서發明한것이니 藥效에對하야疑心을둔다면 그것은 科學을否認하는것인同時에 現代文化人의 資格이업다고生覺한다。

그모든解決은킹스로

아직 그러케될나히가 아닌데도不拘하고體力과性力이衰退에빠저 精力이缺乏하야活動力이皆無하고 早老無能으로 性慾이微弱하야滿足感을엇지못하고 絶望속에서헤매인다면 그以上더큰不幸은업슬것이니 킹스로 그모든解決을求하시려는분은 보시는대로直接注文해 代金引換便으로 下記住所의本舖로直接注文해주시면 秘密送藥합니다 送料는本報讀者에限해十五錢만加算합니다。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番地
總代理店 合名會社 春泉堂 (振替東京七七一番)

藥價　小瓶(一〇〇粒)二圓　中瓶(二八〇粒)五圓　大瓶(六〇〇粒)拾圓
(藥房에서는 販賣치안습니다)

女性에게嘲弄밧든早漏가全快

東京 河邊泰二

何事를勿論하고 不滿足이잇스면 心理는그와反對로 滿足을채우려는마음이 더욱强烈해질것은人情上當然한일이아니겟습니가 小生도 多年間 早漏로滿足感을모르며지내오든바 그原因을 아러解決策을講究치안코 어떠케해서라도 한번滿足感을엇겟다는마음으로 突然히 女性과接觸하는度數만만케하야 滿足을어드라하니 發木求魚도有分數가아니겟습니까、도모지 滿足은엇지못하고 結果가어듸를가도女性의嘲弄거리로 그야말로喜悲劇의續出이엿섯스며 憤함을밧을적마다 心事는不快하기짝이업고煩悶과苦痛은 무어에比할수업섯습니다 그러나 幸히『킹、오푸、킹스』의 敏速한藥效로 그러케甚하든早漏가 完快해지고滿足感에陶醉케되니 기뻐을참지못하겟는同時에 貴堂의德澤을감사히生覺합니다。日前에懷平리할작정으로嘲弄하든女性들을 訪問하야 놀라보앗더니 깜작놀을래며 어째서 이러케되엿느냐고뭇는대는 참으로愉快해엇절줄을몰낫습니다

陰萎가回復되여또절머것다

京城 權重德

옛적부터 英雄이好色이라말이잇지안습니가 老生은英雄은아니올시다마는 好色만은남에게지지안흘만치自信을가젓섯는고로 그까닭이原因인지는모르겟스나 절머서는그러치안튼것이 요지음에는 그만 陰萎가되여 落心과悲觀은 이로말할수업섯사오며 또다시 回復식혀보겟다는마음으로補劑房藥이라고 名稱부튼것으로 조리써보앗고 甚至於무엇무엇하는器具等까지 使用하야强大해지기를바랏스나 一切效果가업더니『킹、오푸、킹스』를服用한後로는나날이强大力이달러지게되는神効로至今은完全히回復이되엿고조금도不滿을늣끼지안습니다 그뿐만아니라藥服中은異常한氣分이생겨저 가만히잇슬수가업게되오며 精神도爽快해저서 心氣一變케되는데는 더욱더욱 놀래고잇습니다 좀더 速服하려하오니 拾圓分으로速히보내주십시요

重症이든神經衰弱이그만速快

大邱 山田信太郎

現代의文明人은 大槪가神經衰弱症이잇다는말에 그리대수롭지안케生覺하고내버려두엇더니 날에말과는 딴판으로 不眠症이甚해지고 갓신히 잠이좃들면夢精이되여 憂鬱과不安을거듭하며 쓸대업는일에空想과疑心이생겨저서 突然히 화만내게되고 사람압헤나서는것이실허저 빈방에혼자누어잇게되니意氣의消沈함과 心事의不快함은 아러본사람이아니면 모를줄노生覺합니다마는 하도기가맥혀自殺까지도하려하엿섯스나 그도못하고 끔끔生覺하다가斷然코治療해보겟다는決心으로服用케된藥이『킹오푸、킹스』이엿습니다 킹스를速히알게된것부터一大幸運이라할수잇습니다마는(略)幸혀은全快되든날로 딴사람가티되엿슬뿐外라還新發刺한氣力으로活動하야 更生의길을開拓하고잇는中이옵니다。五圓分 先金보내오니 보내주시요。

團成社

四日부터八日까지五日間
夜間=中央舞臺公演第二週 (午後七時半開演)
◆朝鮮日報讀者名作小說의戲曲化 來影作
◆殷錫北 作 月波先生 全三幕六場
『못』의 造化 全一幕
(午前十一時부터午後五時까지四回連續興行)
◆RKO라디오文化映畵 かんづめ音頭
◆RKO라디오漫畵 ラヂオ狂時代
◆廿世紀フォックス傑作色風景音樂篇 (十月の或る日)
◆朝日世界ニュース及同 北支事變特報
◆大每東日國際ニュース及同 北支事變特報
◆讀賣發聲ニュース及同 北支事變特報

若草劇

六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 大人五〇錢學生小人三〇錢
冷房完備
1 限りなき旅 1.30 4.10 7.15
2 東日·大每·北支事變ニュース 南國太平記豫告篇 12.0 2.40 5.25 8.30
3 南風の丘 12.15 2.55 5.40 8.45
(一) ワーナー特作 ケイ・フランシス ウイリアム ポウエル主演
(三) PCL特作高田稔江戶川蘭子高峰秀子主演

◇八月六日映畵(三日間)
每日 晝夜二回 始映(낮·一時 밤·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納涼映畵特選公開!

光武劇場

往十里町
◇米國바이다그라프特作映畵
大連續大冒險活劇 猛勇당캉 前篇
猛優월리암·당칸快演 (前後篇二十五卷中) 前篇十二卷上映
◇新興키네마超特作映畵全發聲 現代名篇
戀の浮島 十一卷
伏見信子主演
特別豫告=都會의船歌、鐵路 榮光 海賊船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八月七日부터四日間!!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
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朝鮮語全發聲二大名畫公開)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版!!
春香傳
監督…李明雨 撮影…李明雨
出演…朴齊行、文藝峰、韓一松、盧載信、崔雲峰、金蓮實、林雲學、金英淑、李錦龍
朝鮮發聲 ◇京城撮影所作品
洪吉童續篇
監督…李明雨 出演…李錦龍 李慶善
全發聲過渡行一人

優美館

營樂町 電光二三九五
八月六日부터三日間(短期興行)
超特選名演劇
晝間一時夜間七時半開演
姜道峴作
洋劇 울녀라새벽鐘 二幕
社會暗黑面에무서운싸움!人類의 問爭!살녀고보재는人間들에부르짓는소리!새벽鐘이울때!모든問題가解決되니소리치고싸우든싸움관에는피방울노點鳴花를터다斷然
文藝部編 秘藏脚本
人類에警鐘을울니는敎育劇
어린이야웨우니 一幕
우리는어린이를生覺하고모든邪惡을撤廢할때이요다!이演劇은文部省推薦의敎育劇으로서全家族이다와서보서야됩니다

欧米여름趣味(5)

산으로가자、물로가자 텅베인巴里

貧素한下流社會의避暑

夫君의 뽀-너스를 바라고 一週間이나 三日間이나 그것도 안되면 그날도라오드라도 바다로 산으로 가지안코면流行에 뒤떠러저서 이웃집 안악네에게 맛나볼面目이업다고 하는 앗파文化女와는 因緣이 먼것이다 그리고 또한巴里에서 지나기보담 시골가는것이 經濟된다 그들이 시골로가는것은 도야지와 닭과함께 사라보겟다고 가는것이지 헤엽도칠줄모르는주제에 海水浴服을입고 海邊을 도라다니려가는것과는 意味가다르다。여름을 이러케 지나는것은 마네킹만의 할짓이다

그러므로 佛蘭西의 建國祭 七月十四日이끗나면 巴里는텅비고만다 佛蘭西사람이 업서지고 旅行하려온 外國人과시골가는 『봉』을 노치버린花柳界女子만이 카페-에陣치고잇다

『今年여름은 피레네-의바슈에-르에갈가』『지금부터 조곰식 節約하앗다가 여름은스이스의 뉴-샤텔에가자』는等 저녁밥을먹고나면 椅子에드러누어서 議論하며 그래도 不足하면 寢臺에드러가서 肉體의線을 露出시키는 안해의옷가라입는등이라도 바라보면서『올여름은 이모양으로 지내서는안되겟다』고强要當하는等 여름計畫은 佛蘭西의 家庭을 짐겁게하는것이다。

더욱 이러한市民階級人種이 가는 여름土地는 極히협하다 巴里에사는 그만한 經費로足하다。汽車는 大大割引이다。或은 夫婦처럼 꾸미고가기에 조곰주머니가 가벼울때는 안해만이라도 친정아주머니집이나 누이집에 보내주는것이巴

在巴里 高是得

里에서의 男便道다。停車場까지 스-쓰케-스를 들어다주고發車할때키쓰를해주면 그만이다『자그러면잘단녀오시요너무燥急히 구지마시요』『三週만잇스면 新鮮한空氣와함께도라올터입니다 每日편지주세요 업는사이 온전케잇지안코면난실혀』이러케 作別한다。汽車가 움지기기始作하야 一步驛을 나오면 琉璃빗巴里의 저녁하날은 시원하게 개이고愛慾한겨울과함께 몸에배인 안해의 體臭까지 더러버리고나면 시골이아니라도 肺活量은 늘어간다 몬파르도조타 카르체·라란도 언잔치는안타 카페의 테라스에陣치고안저서 麥酒를마신다。이것은텅비인巴里를직히는男便들의 맛볼수잇는 愉快한生活이다。부-르바르의마로네는 그림자도 더한칭지고 여름의瓦斯燈은 센추아르다그리하야 나는여름의京城生活을 생각해본다 사쓰만입고 마루에잔저서太極선을부치며 차운蜜水라도 먹어보앗스면 그리고오이김치를 먹어보앗스면하고 노스탈자가되여버린다。佛蘭西料理는 世界一이고 巴里의빵은巴里外에는업다 이러한것을 得意揚揚하게짓거리는 東洋의君子는 아즉佛蘭西生活이 익숙하지못한얼간들이다

『빵은정말질중이낫다 아-밥이먹고십다 김치가깍두기가』하고 中國밥집의기름냄새나는 南京살밥에 隨筆의눈물을흘리도록되여야만 정말 國粹的東洋巴里잔이다 十年가까이 京城에잇섯다는 어떤佛蘭西사람이 우리와가티 感傷을가지고 嘆息하엿다

어떠케 이야기가 序說만으로 길어젓다。그러나 이러케얼간으로쓰고잇서도 諸君諸君은佛蘭西에잇는 한朝鮮사람의感傷과 巴里의여름은 半쯤은짐작하엿스리라 이나라의 여름避暑地는 이러이러하다고 朝鮮사람에게는 因緣이먼地方만을 느려노흘必要는업다 조선에까지일홈이알려저잇는 蔚藍海岸은 畢竟 버라부자와 스丈夫와도 미온테-느의쓰레기場에서 美術이나 米國으로부터 老人들이 쏫드를모라 오는 럽직한 享樂과 그들에게매여달리는 貧弱藝의짐일것이다이떠한 事情은 映畫로서 잘보앗스리라。

그러나다시 讀者에게 注意시키고싶은것은 이러한戀愛小說의 主人公가튼이야기를 佛蘭西의 선물로하는 洋行人種들의 수작이지 實相은그十分之九가 거짓말이고 남어지에 조곰더달리는수가잇다爲替時勢에嘆息하고 그리고 世界一의흥능한 寫眞機를 둘러메고 어슬넝어슬넝거려단이면서 말도發音할줄모르는 주제에 아는척하는東洋居士가 보앗다는코-스、모나코、도비-르는서울서十錢均一로보여주는 映畫에서보는편이 훨신經便하고 確實히알것이다

東洋사람들의 눈물을 마시며 보구십거던 洋行을하여라 아무리女子가만흔 佛蘭西라하더라도 道德이나마 東洋사람에 女子는 因緣이멀다 그것이만약거짓말이라고생각하거던 朝鮮에 드라갈때 西洋녀편네를 어더가지고 得意滿面하는 그들의西洋에서의身元을 調査해보는것이조타

가튼東洋人가운데도 中華民國諸君은 이나라에서 때기고산다 街頭、十人의女子中 八人까지는 다라고놀수잇다 美人王國에서 女子에게 미움맛는 不合理한술흠이 어데잇스라 朝鮮사람들은、悲壯한運命을 가지고잇는것이다

左右間 이러케豪奢스런 世界에정말 佛蘭西의여름은업다 잇는데는 시골뿐이다 大概巴里사람은 故鄕인시골에집이나 親戚이잇스면 거기를간다 中流로두러 우에올려가면 시골에所謂비이라를가지고잇다 朝鮮에서 別莊가튼것은 特權階級의 專有物이나 佛蘭西에서는 男子한사람이 相當한俸給을받도록되면 어떠케하더라도 시골에 비이라하나쯤은가진다 草家三間이라도 문하다。巴里近處이-르·도·푸랑스도조타。피레네-도조타。南佛도조타。佛蘭西사람이 特히 巴里人이 南方을그리워하는것은 生理的으로 必然의異常性이다 奢侈에서나온것이안이다。

긴겨울에 싸여잇스면 아비니용近方 저南佛海岸의 오랜지、올리브의 深綠에 비치는 밝은햇빗을 밧고십다 佛蘭西사람은 놉흔산이업고 全體가 丘陵地의 連續임으로 山이그립다。정말선선한 高山은 瑞西까지가지안코면 볼수업다。쥬라나 맛시-브는 놉더라도 大體意識로 여름은덥다 그러하야 피레네-로가게되다 피레네는 一帶가 朝鮮의金剛山가튼感이잇다 風俗도오랜歷史를가진 바스리與、바리에-르 비고-르等 戀愛劇까지 낫는다는溫泉以上으로 效果가잇다 山間에澗외테라스에서 밤의山氣를마시면서·바스리의民謠를 멀리듯는것도 조흔風趣의하나다。

이야기가또 女子이야기로되여간다 그러나 巴里의 人種들에게는 여울의시골가는것은 도한戀愛行이다。아모리 女子過剩의 佛蘭西에서도 毎日아침에나가서 밤에도라오는 市民階級에게는 그러케 어디서나 戀愛가 굴너오지안흔것이다 東洋의 旅行者가 줍는것은 東洋人式으로 特別히 되여잇는것 밧게는업다

佛蘭西사람은 그것은 조치못한것으로 알고잇스나 도로혀 이러한東洋人式의 女子가賢明하다 平生의男便이나 안해를 定하고 物件을골으는데는 시골에라도가서 조용히 健康한空氣를 마시고 健康한것을먹고 勤勞階級이라할지라도 多少는 社交的으로 되여서天然自然、本能的으로 천천히相對者를 算盤으로 노아보는것이다 草原과 숩은어듸라도잇다 처녀는 젊은작자를 고르고男便 안해가잇는者는 他人의안해 男便과한여름의 아반튜-르를 할지도모른다 巴里에서 집을직히고 잇는男便은 한녀름의 코큐의嘆息은 覺悟하지안호면안된다

이러하므로 巴里의人種들은두구나 여름에는 시골가는것이 조타 가지못하게되면 醇風美俗에 反하는것이라 멋부리도친구들은 世界中어듸라도잇는것으로서 시골못가는 形便이면 가는척하는흉내라도 내여야 面目이선다 여름더운데門을 구지닷고 컴컴한 방안에 가만가만거려단이며 밥을먹어도 그릇을 씻는데도 소리가 나지안케 操心間하야 一個月 籠城하여야된다 그리하야 저편이웃이 시골서도라올때쯤 겨우얼골을 내여노코『집에서는 수年에 부르타-뉴의산、마로에갓다왓슴니다』하고 人事를 해야한다 더욱 처녀들은 멋부리기를조화하는데 十日間이 寢臺속에 드러누어서 참고참엇다는 이야기도 그다지珍奇한事實이아니다『저는산찬、도류쓰에갓다왓서요』하고 西班牙國境의 海岸이야기를 한다 얼골이 거머스리라하고 치오다보면 意外에도 蒼白한얼골이다 巴里流行의 볏살에쪼여진살빗의 白粉이잘팔리는것은 이러한 理由도 숨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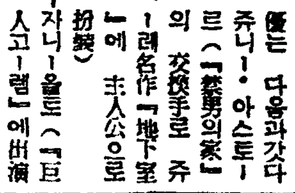
그러나 佛蘭西人도 人民戰線內閣이成立된以來 勞働者 勤勞階級의 慰安保健을爲하야 政府가 勞力를장히하고잇서서 이러한 苦生을하지안코도 시골가는方法은 만히잇다 미니스트르、도로아지-르直屬하면 勞働大臣이 大衆의福利를爲하야 閑暇한것이 안이라 빵을 줄리고 活動하며、夏休도二十日一個月까지가 기러지고 쉬는데로 給料까지준다 지금까지四十年間이나 貧困한 勞働을하야 巴里外에 나가는것을 몰러 드리고시퍼도 못드리던음은勞働者들은 이다지길고긴休暇를어떠케 지날가하고 정말 알고잇는 現狀이다

그냥두면 너무만히생겨서할이라는朝鮮의 人口와는逆으로 女子가죽처럼 아히를나허주지 안어서 苦悶하는 佛蘭西에서는『그냥두면 나라가亡한다山과川만이남을것이다』하고國民保健運動이 이러난다여름이되면모든것旅行宣傳의포스타-다 이러한宣傳에따라 작고단이다가는가난한東洋居士들의주머니는텅비이고말는것은『라이카』나『파테、베비-』일것이다

(寫眞은 모리맛에어드린 佛蘭西女人)

가을에活躍할 歐洲의人氣스타

今夏『善男善女』에서 떠니엘떠뤼、『우리들의동무』에서 비비아-느、로맨스等 美貌스타-를紹介 스크린에 보내고잇는歐洲映畫界가 오는씨-슨에 代表選手로서 크게活躍이 期待되는女優는 다음과갓다



쥬니-、아스토-르(『善男善女』의 女傀手로 주-레名作『地下室』에 主人公으로 扮裝)

자니-올로(『巨人고-렘』에出演 『南方飛行』의主人公)

리겟즈란반(『최후曲』에서쥬비레』쥬니-의집에서 로제-의처녀役으로活躍)

홀렌라키-(今臣포르-스트가 發見한 獨逸映畫界 唯一의新進女優)(『부르크劇場』의 女主人公으로)

조세트데(『巴里-伯林』以來 쥬비비에의 秘藏女優로 쥬바리에의 『流行兒』에相對役)

이자미란다(伊太利로부터 佛蘭西에 건너온매트리히젼美貌女優로 니-나、메토로비나에 떼뷔한다)

非常時反映 戰爭映畫豊作

映畫界에도 戰時를 따라 여기에 取材한 所謂戰爭映畫가 가올씨-슨을바라보고 續續中이다。

그主要한것을 들면、『南方飛行』이라는 佛蘭西映畫와『스파이戰線을 찌르다』는獨逸映畫와『旅順港』이란 戰爭映畫들이잇는데 相當한 大作들이다。

그뿐아니라 東京日活 松竹들 合組한 各社는 모두北支現地에가서 戰爭映畫의製作을急히하고잇스므로 가을에는모든戰爭映畫의豊作을 보이리라한다

루네·크렐提携 짝·푸카난과

英國의 映畫俳優요 또 製作者인 짝·푸카난은 六本의大作을 맨들기로 發表하엿는데 그中의二作만은 루네·크렐監督을 밧기로 決定하엿다。한作品은아델·아스테나와 共演케되고 또한作品은 色彩映畫로 맨들작정이라고한다

라디오

七日(土曜)

◇午後六時三〇分 이야기『白衣天使나이팅게일』 高一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禍福과修養(二) 李明世
◇同八時 週間時事 金麟伊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 瀟湘八景 丈夫恨 沈相健 杖鼓 丁元燮
◇同九時 라디오드라마『故鄕을이저바린女子』三幕
●配役
藥明植 金昌基
順女(그의妻) 池季順
琅姬(秦의前妻) 池崔順
洞里老人 金業
解說 太公望
作及演出 金健
効果 李康
라디오劇同好會

第一放送
◇同六時 (岡)天然記念物
◇午後六時三〇分(城)兒童스켓취
◇同七時二〇分 (城)講演
◇同八時 (東) 敎育會議
◇同八時三〇分 (哈)水十夜
◇同八時四〇分 (東)俚謠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八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唱劇調 一、短歌 天下太平 二、唱劇調 興夫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六時二〇分 童謠와唱歌 一、齊唱적은별 二、齊唱주의아해 三、齊唱시간 四、獨唱 천당가신어머니(洪貞順) 五、齊唱낫조흔잠외 六、獨唱시내물(李如珠) 七、齊唱 늙은나무 八、齊唱비방울 九、齊唱반짝반짝작은별 十、齊唱쌍이핀장미 十一、齊唱아름다운세상 貞洞幼年主日學校 指揮 鄭上祿 伴奏 申在德
◇同六時五五分 修養講話 崔南善
◇同八時 脚本朗讀『이러스는집안』單幕 黃澈
◇同八時二五分 一、小春香歌 二、사철가 三、달거리 鄭瓊善 金泰運
◇同八時五〇分 (平) 배뱅이굿
◇同一〇時 音律『靈山會相』 玄琴 李彦稙 洋琴 李承煥 奚琴 金德鎭 短簫 崔壽成 細笛 趙載弼 杖鼓 池龍九

第一放送
◇午後一時 滿洲新歌曲
◇同一時二〇分 (東) 謠曲午後
◇同六時五〇分 (大) 夏休雜六
◇同七時三〇分 (東) 歌謠
◇同七時四〇分 (東) 特輯演藝
◇同八時一〇分 (東) 物語
◇同八時三〇分 (臺) 水十外
◇同八時五五分 (東) 講談

九日(月曜)

◇午前一一時一五分 復習時間 國語(四) 咸灝默
◇午後〇時五分 映畫이야기 女子의貞操 成東鎬
◇同六時三〇分 童話劇 꿈나라의종 새벽종어린이會 指導 趙仁行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라디오大學 經濟篇 徐椿
◇同八時 講演 防空方法에對하야(二) 陸軍步兵少佐 李大永
◇同八時三〇分 레코-드音樂
◇同八時四〇分(東) 獨唱 中川牧三 피아노伴奏 高木東六
◇同八時五五分 一、새타령 二、六字백이 趙蘭玉 趙錦玉
◇同九時一〇分 歌曲 一、羽調 二、半葉 三、弄 四、編 金蕉紅 丁山紅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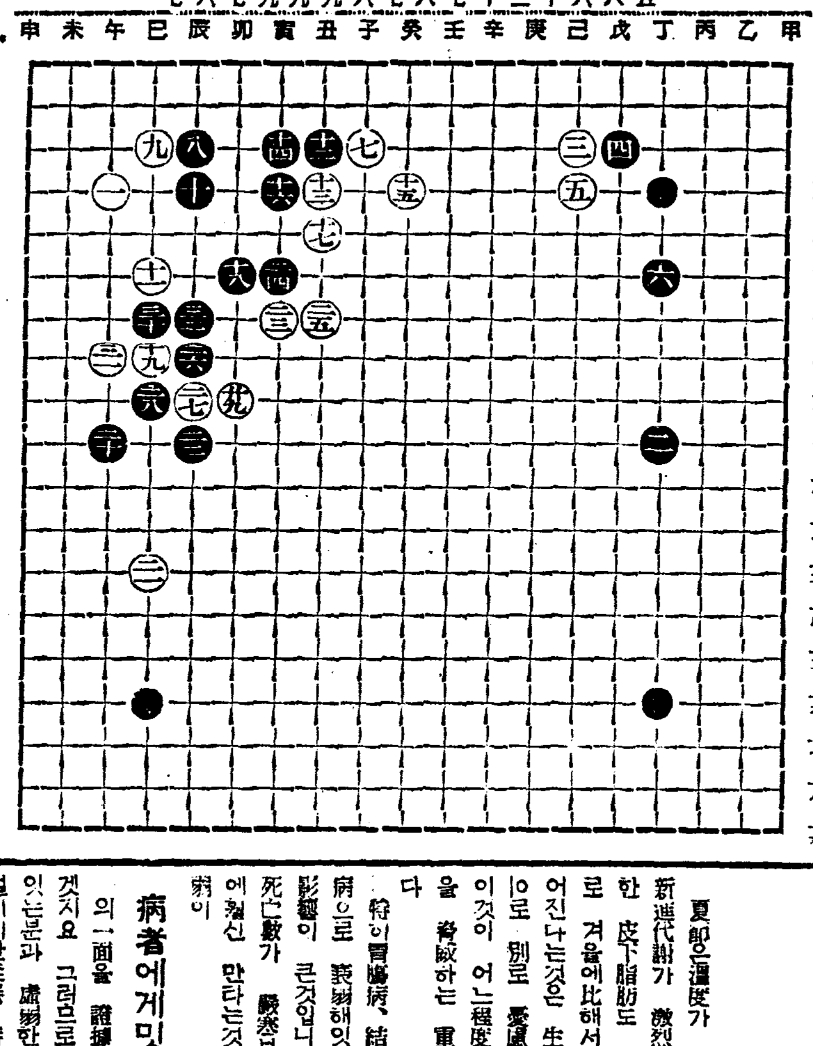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東)二絃琴
◇同六時 (大)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 (大)及休雜六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同八時 (東)浪花節
◇同八時三〇分 (松)水十對
◇同八時四〇分 (東)滿唱
◇同八時五五分 (東)講談

圍棋對局譜 (2)

本社主催

白 廣瀨仲子
黑(二點置) 崔享烈

○十七 丑의五
●十八 卯의六
○十九 巳의八
●二十 午의十
○廿一 巳의十三
●廿二 辰의十
○廿三 寅의七
●廿四 寅의六
○廿五 丑의七
●廿六 辰의八
○廿七 辰의九
●廿八 巳의九
○廿九 卯의九
●三十 巳의七
○卅一 午의八
●卅二 辰의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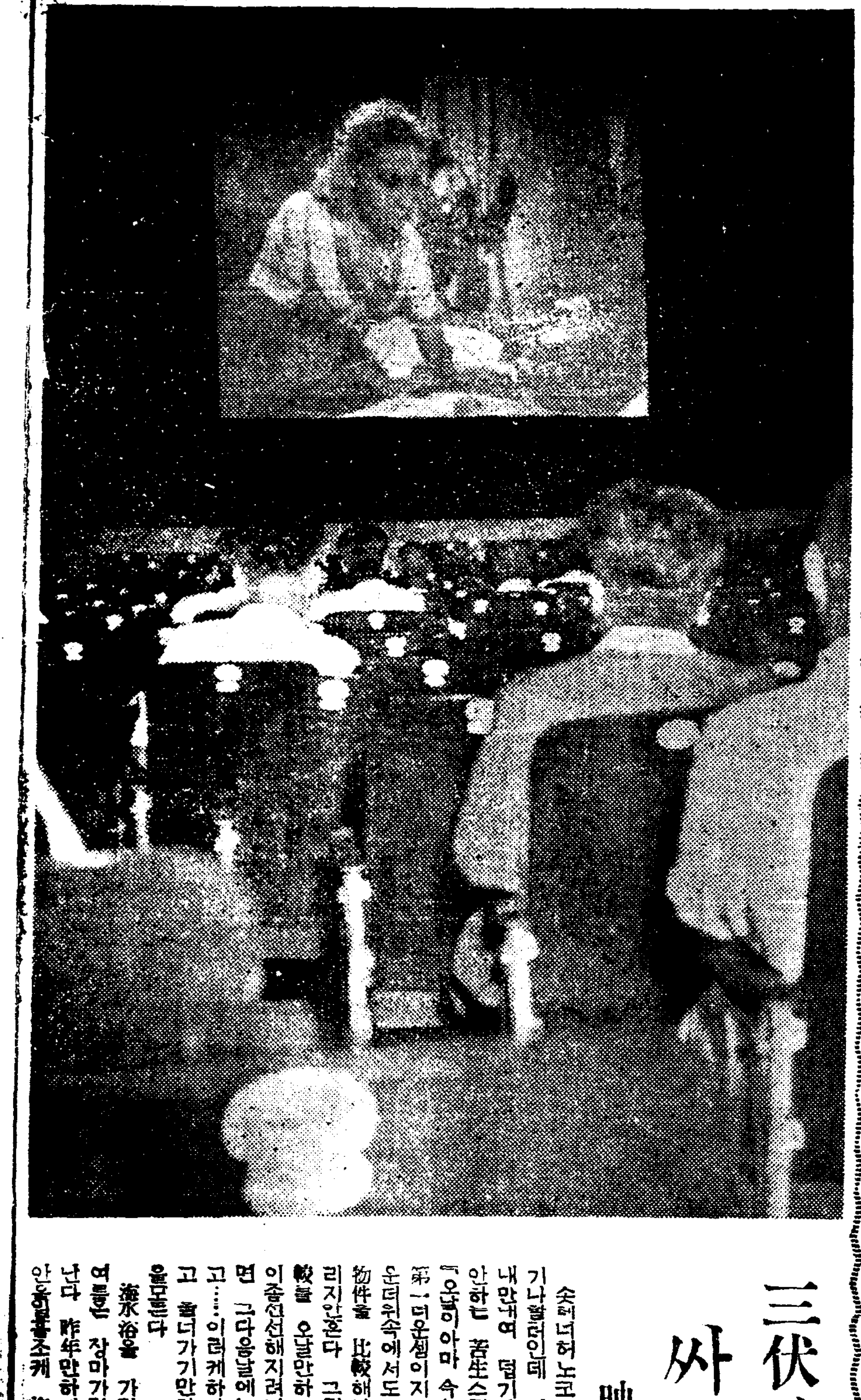


觀戰記

白巳의八을 黑이午의十으로 對應는 牽制策이 適合하고 白寅의七 包圍黏을 黑辰의八應도 亦是近可하나 白이辰의九衝間은 誠是意外奇方이다 高明手法이 許多有不測機關하니 實爲對手方着眼注意를 喚起하노라

三伏더위에도 싸늘한景氣

映畫舘구경은貸切하는셈



숫제더허노코 쩌버리면 죽기나할터인데 이것은 찌는찻내만내여 덥기만하고 죽지는안하는 苦生스러운 여름이다『오늘이아마 今年여름 들고는 第一더운셈이지』하고 그무서운더위속에서도 都會사람들은 物件을 比較해보는習性은 버리지안혼다 그러나 이러한比較를 오날만하고 來日이면날이좀선선해지려니하고 기다리면 그다음날에는 또더더워지고……이러케하야 水銀柱가작고 올더가기만하고 내려올줄을모른다

海水浴을 가랴하나 朝鮮의 여름은 장마가잘지고 洪水가 난다 昨年만하더라도 한달동안흙물조케 海水浴이라 하옵시고 그냥장마를맛나 旅人宿방에서 머리를알타가 오는驗을 가진터이라 今年여름에는 아조아모데도 避暑를가지안코 서울에서 살겟다는친구들이만타 世事가 如意치못함이라 장마질食慾가잇서서 가지안코잇스면 今年에는 또한비가오지안코 볏살이쨍쨍하다 이러케되고보니 避暑할費用도準備가업시 그냥出發할수도업거니와 三伏이지낫스니 곳시원해질것을 지금새삼스리갈수도업게되여 都會의有閑·靑年들은 進退兩谷에 빠지고말엇다。

下宿房에서 낫잠들자라니더울고 나서서거리로도라단이랴니 더울고갈데가업다 左右間 그늘진곳에 드러가야만할터인데……생각다못해서、더울줄알면서도 그늘진곳이라하야 차저든곳이 劇場이다 冷房裝置는하엿스나 元來사람이만히모히는곳이라 사람기운에 더더울거니하고 마즈막窮策으로드러갓스나 結果는그와反對―그림은室內에는 사람이헤아려도 헤아릴수잇게 몃사람드러오지안코 扇風機가돌고 椅子밋구녕이싸늘하고 그우에映畫를鑑賞하고……이것은 정말살엇고나하고 그냥最終푸로까지 멧번이고보아가면서 終日드러안저다이러한避暑法은 여러사람이알게되면 避暑가되지안코 멧사람만 알고하는 秘藏의方法이다。벌서 서울서도 이때를이늘어가고잇다하니 정말이것이 大衆避暑法일고利用하는 사람도로혀 더워질것이요 또그때쯤은 선선한가을이기도 할것이다。明年여름에는 남먼저이法을 利用하기로하고 今年에는 벌서때가늣다。

家庭医學

結核의誘因이되는 夏瘦의恢復法

初秋에 結核과 死亡率이增加되는것은夏節衰弱이原因

夏節은溫度가 놉하서 身體의 新陳代謝가 激烈하고 保溫을爲한 皮下脂肪도 必要가 업스므로 겨울에比해서 幾分體重이줄어진다는것은 生理的自然의現象이로 別로 憂慮할것은 업스나 이것이 어느程度를지나면 健康을 脅威하는 重大性을띄게됩니다

特히胃腸病、結核性의病、慢性病으로 衰弱해잇는분에게는 그影響이 큰것입니다 結核患者의 死亡數가 嚴寒보다도 暑熱季에훨신 만타는것은 夏季의 衰弱이

病者에게미치는害毒

의一面을 證據하는것이라고하겟지요 그러므로 身體에 病이잇는분과 虛弱한분은 이夏瘦에 걸리지안토록 特히注意하지안코면 안됩니다마는 實際에잇서서 그러한분이 또夏瘦에 걸리기쉬운것입니다

至今까지夏瘦의 傾向이잇는분은 하로밧비 夏瘦에서버서나서 體力을回復식히려고努力하시지안코면안됩니다。

夏瘦의第一徵候라고할것은食慾이업서진다는것입니다 夏節은體溫保持에要하는카로리가적어도될수잇스니까 食物도겨을가리多量으로攝取하지안하도 조케지요마는夏瘦症이잇는분은 그것이程度를넘어서甚하게

食慾이減退되여

生理上必要한日常 榮養量의攝取가不足하게됩니다。

이食欲不振의 原因은 一般으로胃腸의 機能이 弱하기때문이라고생각해왓는대 勿論그러하겟지마는다만이것을 胃腸만의衰弱이라고해서 胃腸에關한 藥만을써서治療할수잇다고생각하는것은今日의進步된 醫學의知識으로보면 地에는時代에뒤떠러진感이잇습니다 今日에는어떠한病이라도 個個의 症狀을 잡어서 그것만을 治療 하려는것 보다도 全身的으로身體의機能을 昴進식혀病原或은病患에對한抵抗力物質을 만드러서 病이治療되도록 하라는것이治療의 新學說이 되여잇습니다 夏瘦症과가튼 全身的機能衰弱에依한 榮養障碍는 勿論이고

身體自身의活動을

昴進식히는것이 必要합니다

이러한意味에서 近來一般家庭에서 흔히쓰고잇는『錠劑わかもと』는 夏節의衰弱을 恢復하려는 분들에게 極히好適한藥입니다 이것은 에-뷔菌이라는 一種의微生物의 全成分을 破壞안되도록 專賣特許方法으로 製劑한것인데 에뷔菌特有의 細胞原形質賦活作用이라는 身體의 細胞에 對하야 그힘을 强하게하는作用이잇스므로 이藥을 服用해서 胃腸의機能이活潑이되는것은 普通胃腸藥을 服用한경우와 그意味가다르는것입니다

胃腸을構成하고잇는 細胞의機能이 强하게되엿기때문에 消化作用도 吸收作用도 蠕動作用도 다 活潑이 됩니다。그래서 當然히 食慾이느는것입니다 이食慾은

食慾增進비타민

이라는 비타민B의含有量의豊富하므로써 一層促進되여 體重을 增加식히고 夏瘦의 恢復을 圖하는效果는 틀님업는것이 잇습니다。

胃腸病、結核性病等으로夏節의 衰弱의危險을 防止하지안호면안될분에게는 가장合理的으로進步된 常用藥입니다

活動力增進과疲勞防止

우리가心身을使用하면 疲勞하는것은 何故이겟습니까 以前에는 筋肉과血液中의糖分이 新陳代謝의副産物에따라 消費되야 諸器官의動力에不足을 招來하기때문이다 故로糖分만 補給하면 疲勞는恢復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잇섯습니다마는 最近비타민B가 發見되여서는 糖分의利用調節上에는 이것이 絕對必要한것을 알게되여서 疲勞恢復에는 糖分外에비타민B도 補給하여야한다는것을알게되엿습니다。

純正에-뷔菌劑『錠劑わかもと』를服用하면 이貴重한비타민B는勿論人體內에서 即時糖分化하는 구리코-겐、諸器官을强壯케하는酵素가同時에 補給되여서 活動力增進과疲勞防止가理想的으로조화됩니다

心臟과胃腸을强케하고、浮腫 痲痺를除去식히는綜合療法

往昔 日本武尊께서伊吹山의惡神을征服하시려다가、惡氣로病患을이르키시여 伊勢에서薨去하섯사온대 御道中『내다리 三重으로굽어저서 몹시도疲勞햇다』라고 步行의 御困難을 말삼하신것이 古事記에 記載되여잇습니다

武尊께서 專혀隨從 御平定을爲하시서 괴로우신旅行을 繼續하신前後의 事未를拜察하오니

御病患은今日의

脚氣로생각되는대 그原因은 近來에와서 主로 비타민B의 缺乏에因한 榮養障碍라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即 가장걸리기쉬운이는 身體의 新陳代謝가만흔 姙産婦와 勞働者乳兒等으로 이러한이들은 普通사람보다倍나비타민B를 多量으로 攝取해야하는 生理上의 必要가잇기때문에 잘못하면 不足하기되는것입니다

그래서我國의 脚氣患者는 年年百萬人에 達하야 浮腫과痲痺때문에 活動力을 喪失할뿐아니라 무서운 衝心의 危險에 빠저서 死亡者도 年年數萬人을내고잇습니다。

脚氣에는一般으로 玄米와半搗米가

비타민B가豐富하므로 食餌療法에推奬되여잇습니다 그러나大震災當時와가티 白米가不足하야一時玄米를먹지안호면안될 非常時가아닌以上 맛이업서서 常食에는 不適當합니다 뿐만아니라 비타민B를만히包含하고잇는 貴重한 胚芽는 消化가잘안되여 百分之九三은 그대로排泄된다고 金澤醫大의 高橋博士도 發表하고잇고 또脚氣그自體가 消化障碍를 同伴하는것으로 不消化物인 玄米와 胚芽米는 이弊害를 一層助長식히는 危險性이 잇습니다

또單純한 비타민B만의藥이臨床上 그리效力이업는것인데 이것으로보드래도 脚氣는비타민B以外에도 어떤未知의原因이 잇다는것을알수잇습니다

따라서 脚氣를治療하는 藥은 비타민B가 第一이라고해도 또 이것을

補給할것이必要

할것입니다마는 꼭右를實證하고興味잇는것은 在來의비타민B만의脚氣藥보다、다른例를들면 腦에 조흔藥가튼것과 倂用하는便이 훨신効力이 빠르다고 한니다

그理由는또研究의餘地가잇는것으로 되여잇는대 何如間脚氣는 비타민B의 缺乏에 어떤未知의 因子가 加味해잇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近來에는脚氣豫防과治療에 비타민B以外에도 多種의要素를 網羅한『錠劑わかもと』의 服用이 推奬되며 이미 그効果를 充分히認定하고잇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럴듯한理由로 『錠劑わかもと』의 主成分인活性에-뷔菌에는 비타민B가 豐富하게 包含되여잇는우에 胃腸과 心臟을 强케하고 便通利尿를재촉하는作用이잇는活性酵素와腦神經에作用하야痲痺를鎭定식히는成分等을 含有하고 잇기때문입니다

故로 이『錠劑わかもと』를 服用하면 重한 脚氣로 苦生하는분이라도 浮腫、痲痺、動悸等의 症狀이 次次 恢復되는것으로맛업는 玄米食의 必要도업는 極簡便한 療法이라고 實用되고잇습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 東京芝公園大門際、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二十五日分一圓六十錢 八十三日分五圓라는一日數錢도 안되는 廉價로發賣하고잇는대 近來그聲價를利用해서 效果가 疑心스러운類似品을 으로 廉賣하는藥店도 잇사오니注意하시요

黃疸療養中 脚氣가併發

(和歌山) 光野格邇

나는寺院生活로 胃腸을衰弱케하야 醫師의 診察을바든結果『加答兒性黃疸』이라는대 食事는 不振하야 日日衰弱을 添加해갈뿐이엿습니다

여러가지 療法을 試驗해가는中에 不幸이도 脚氣를 이르켜 다리가 푹푹쑤시여서一時는 정말어찌되는가하고걱정햇는것입니다

어느날 寢床에서『錠劑わかもと』를생각하고 藥店에 電話해서 一瓶을 가저다가 服用하기始作햇슴니다 그뒤로는 前보다食慾이 훨신늘고 飮食의眞味를 맛볼수잇게되엿습니다 이기뿜은 어데 比할때업섯습니다 그리고 膵臟인藥이므로 繼續해서 服用하는中에 麥酒와갓튼尿의色도 점점稀薄해지고 食事는벌서 病前同樣으로되고 脚氣도輕快해저서 다리의 痛症도적어젓습니다 勿論飮食도 消化잘 되는것을 먹고『錠劑わかもと』는 食事할적마다 빼지안코服用햇습니다 또加答兒性黃疸도醫師의藥으로 全快되여간다고할만치되며 너무나 順調로 快恢復에는 歡喜外에는아무것도업습니다 現在는 病前의 狀態와何等의 異狀이업고 勞力을써도 조곰도苦痛을 느끼지안습니다

中部版

華川서또獻金

【華川】화천군하에서 다수한국방헌금이 잇섯음은 루보한바이지만 요즘 또 기제씨로부터 계속하야 국방헌금이 잇서 당지경찰서를 통하야 조선군사령부에 송달하엿다

華川郡華川面中里 [illegible]十圓 同郡看東面芳川里金[illegible]十圓 同[illegible]子三圓 同下南面[illegible]里金[illegible]命[illegible]十圓 同上西面[illegible]本享納稅組合十圓五十錢

京南의十餘精米所 作業을一齊中止

鐵道運輸制限으로原料租缺乏 從業勞働者의生活을威脅

【京南】북지의전운은 갈수록험악화하고잇는이때 각방면으로미치는 영향은커서 대구(大邱)에서는일시입회(立會)정지까지잇섯스나 금번경성남부지방 십여개소 정미소에서는 약일주일전부터 작업을중지하는 상태에이르러 지난삼일부터는 일제히작업을중지하엿다

그원인은 정미원료(正米原料)부족인데 정미업자들은 각지방에 벼(籾)를 만히사노핫스나 금번철도화물수탁제한으로 인하여 사노흔원료를 운반해오지못해서 어와가티 작업을 중지하게되엿스며 지금에 시국형세가 그냥계속되는날까지는 회복되기가매우 어려우리라하며 이에따라서 정미소에서 밥버리를하든 수만흔사람들의 생활을위협하게되여 사회적으로도 큰문제라한다

國防獻金

【春川】금번북지사변에호응하야 의연금을 헌납하는이가 속출하야 현재상당한액수에 올라잇는데 지난상일 춘천읍본정일정목 촌상구팔랑(村上九八郞)씨는 일금이백원을 춘천경찰서(春川署)을통하야 헌납하엿다고한다

不完全한平康水道 今秋에修繕着工

總工費七萬圓으로

【平康】강원도평강공유내에서는 수도공사의 불완전으로 도수로(導水路)의 고장이 가끔생기여 읍민수부족으로 일반사회에 불안이만튼바 본수도를 관리하는 평강면에서는 전반적도수로를개조하기로하고 지난이일에 총독부기사가 출장하야 조사한결과 총공비 칠만원으로 전반수도를 개조하게되엇다는데 위선급선무인 상수도개축을위하야 공비구천원으로 금추에 공사에착수케되다하며 아프로 도의보조비를바더 전부사를 착수하게된다한다

自轉車賊被捉

【春川】자전거를 절문으로 교묘한수단을써서 훔처다가 팔어먹는 히유의절도범이 드디여춘천서원에게 체포되엿다 본적을 화천군화천면신읍리(華川郡華川面新邑里)에두고 김화군원남면주파리(金化郡遠南面注坡里)에 거주하는 리창식(李昌植)(二六)은 그간자전거절취를 전문으로하여오든중 지난칠월삼십일밤 춘천읍본정이정목『라듸오』상 광운상회(光雲商會)의 자전거를훔처타고 다라나 신연강(新延江)철교에가서 그 감찰과『마크』를떼여 강에던지고 양주군와부면팔당리(楊州郡瓦阜面八堂里)에이르러 [illegible] 이자전거를 [illegible] 자기가훔친자전거에 부치고 유유히 중앙선(中央線)철도공사장까지가서 그곳서얼마동안지낸후 그자전거를 타고도로춘천(春川)으로와서 성모(成某)의고물상에게 일원육십전에 팔어먹고 그자취를 감추어버렷는데 그팔어먹은 자전거가단서가 되여 지난팔일 춘천서형사에게 체포되엿는바 그간 엄밀한 취조를 밧고잇는데 불원간 송국될터이라고한다

素砂公普新築費로 有志의寄附遝至

不遠工事에着手

【素砂】경인선소사역전에 잇는 소사공립보통학교는 루보한바와 가티 교사가협착하야 이를이전확장하기로되엿스나 여러가지사정으로 공사에착수치못하엿섯는데 소사유지의 열렬한 공육렬은 마침내 막대한금전을 자진기부하게되엿는데 이미 드러온것만도 박주순(朴周淳)씨의 일천원을비롯하야 리성환(李聖煥)씨는 오백원 또 수등정웅(須藤定雄)씨의 삼백원 원인상(元仁常)씨의 이백원등의 대금기부가잇슴으로 불원간 공사에착수하야 느저도 결빙기까지에는 준공하도록할예정이라한다

觀測所移轉에反對

仁川府勢振興會發起로 九日公會堂에서聯合協議會

【仁川】인천의명물인 총독부관측소를 작년도에 경성으로이전하라다가 인천부민의반대로 이전을 중지하얏다함은 당시의보도한바와갓거니와 금번에 또다시 이전키로하얏다하야 인천부세진흥회에서는 그대책을 강구키위하야 오는구일 오후사시공회당에서 연합협의회를 개최하고 좌기각항을 토의키로하얏다한다

一、工場誘致에關한件
二、工業用水問題에關한件
三、觀測所移轉問題에關한件

時局認識懇談會

【華川】지난칠월삼십일일 오후사시 화천군청에서 관공리와지방유지가 회합하야 추산강원도학무과장동재하에 군수서장을 주로하야 북지사변에 관한 시국의인식철저에 대하야 간담회가 잇섯고 동오시삼십분에 폐회하엿다

蘇萊面에서도獻金

【蘇萊】부천군소래면에서는 연일국방헌금으로 헌납하여달라고 소래경찰관주재소에 기탁한다함은 본보에 루보한바어니와 지난오일까지 헌납을기탁한사람은 다음과갓다

一金二十圓 蘇萊面新川里 金[illegible] 同芳山里金月龍 一金十七圓十錢 蘇萊面蛇川市農村振興會員一同

四大項目을걸고 議員總會를開催

十日仁川商工會議所에서

【仁川】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오는십일오후사시부터 의원총회를개최하고 좌기각항을 토의키로하얏다한다

一、朝鮮商工會議所總會의報告
二、議員視察旅行의件
三、店員表彰의件
四、店員講習會開催의件

時局講演盛況

華川邑主催로

【華川】지난칠월삼십일일 애국부인회 국방부인회 재향군인분회 급 국방의회원 삼백여명은 화천공회당에 회동하야 무운장구(武運長久)의 기원제를 행한후 당지 시국간담회에 열석키 위하야 내회중인 추산강원도학무과장 림군수 황서장이 시국에관한일장의 강화를한후 좌기사항을 협의하얏다한다

一、국방헌금급 출정병사의 위문금모집에관한건
二、애국부인회원의 증모강화에관한건
三、국방의회의강화철저에관한건
四、방공사상의보급함양에관한건

自動車運轉手와 衡平社員이衝突

【大田】지난이일 대전부본정이정목 전기회사아페서 형평사원한사람과 자동차운전수사이에싸움이이러낫슴지음에 겨테서보고잇은 전주옥고용인 김창섭(金昌燮)이가 백정은때려죽여도조타는소리를하얏다는혐의로 지난오일오전세시경 서정교를통과하는전기김창섭을 형평사원사,오인이붓잡고 이놈아어재서 백정은마저죽어도 조탄말을하얏스냐고 힐문한사실이잇다는바 이소문을

驪州江에서첫犧牲

【驪州】지난 사일오후팔시반경 려주읍내 상리(驪州邑內上里)최영락(崔永洛)씨의 고용인 정성수(鄭性洙)(二七)는 주간고열에 시달리든나머지에 도선장(渡船場) 어구에서 목욕을하든중 물가에 버서노흔 옷만이 남어잇고 사람은 업는것이 발견되며 즉시 경찰서에 급보한바 경찰서원과 수방단(水防團)을 총동원하야 칠야를 계속하고 철저히조사한결과 오후두시반경에 어래·발견하엿는데 벌서 시체로화하야 공의의 응급수당이 잇섯스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못하고 무참히 고혼이되엿다한다

"개고리"를"食用"에 變하는京城人의口味

肉價는올라도屠殺數는激增

칠월한달동안에 경성도수장(屠場)에서 도살된 동물의 수효는 삼천일백구십이두로 그가격은 어십사만구천팔백팔십원유십전이엿는데 작년칠월에 비하야 이백사십두가 더만코 가격으로는 사만삼천팔백오십원유십전이나 더만타 그가운데서 소는 일천구백유십팔두(이십이만삼천칠백사십구원) 도야지는 일천일백어십구두(가격 이만오천구백어십사원유십전) 만은 네머리(유십원)개는 구십일두(일백사십칠원)가 각기도살되엿다 특히주목되는것은 개고리를먹는사람이 서울서도 점점 느러가는현상이다

水泳講習會開催

【仁川】인천덕적(德積)어업조합에서는 아직도 수영을하지못하는 일반어민을 위하야 인천고수영강습회를 개최키로 하얏다한다

本報仁川支局後援 軟式野球大會

八日부터二日間擧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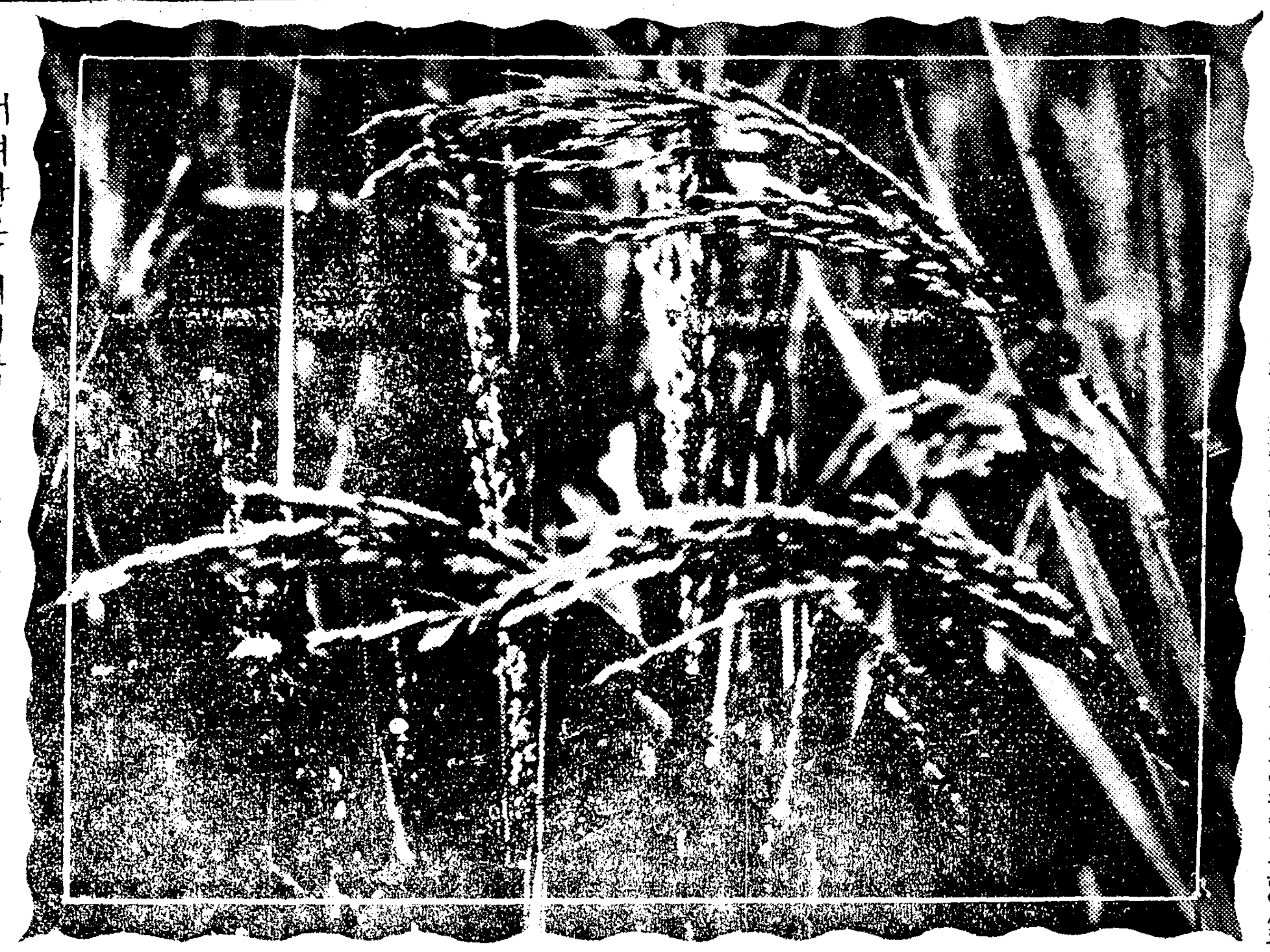
【仁川】인천체육회 주최와본보인천지국후원의 전인천연식야구대회는 기보한바와갓거니와 신청은 지난사일로써 마감을하고 동일오후팔시 주장회를개최하고 추첨한결과 다음과갓다하며 대회는팔일오후삼시로부터 시작하야 동일 준결승전까지하고 결승전은 구일오후오시에거행키로하얏다한다

A野口商會 B米檣 C天一 D朝燐 E朝取 F漕物浦 G濱勇

長壽하면多辱 八旬翁의哀話

눈물의告訴를春川檢事局에 崎嶇한運命에飜弄ㄲ레

【春川】팔십고개를넘은 늙은이 봇다리를지고 무거운다리를 끌며 지난오일 본보춘천지국에와서 자기사정이야기를하는 듯는사람으로 하여금 비애의눈물을 짓게하엿다 이애화의주인공은 인제군인제면동리(麟蹄郡麟蹄面東里)에 거주하는 김덕복(金德福)이라는금년 팔십사세의늙은이로 종래는 상당한살림을하며 슬하에 아들 메누리 손자가 그득이잇고 남보기에 부럽지안흔 생활을 해오든터인데 매년이다시피 몰려오는 홍수해로 인하야 논마지기를 다무더 버리게되자 지금부터 삼년전 어느봄날 아들 영선(英三)이는 생활에쪼들리다못하야 만주(滿洲)로돈벌리 가버린뒤로는 더욱가세가 빈곤하게되엿는데 설상가상으로 재작년여름 장마에 의지하고잇든 집한채까지 떠내보내게되며 어린자손들을 달이고 걸식을면치 못하게되엿다 당지 경찰서(警察署)에서는 이광경을치근이 여겨 목재와 기타를 알선하여주어 동리 전사유(全史有)라는 지주의땅을 백여평을 매년 팔원룹십전에 빌려 초가집여덜간을 짓고 늙은이는 산에가나무를하고 며느리는 풀파리를하여 겨우일곱식구가 연명을하여오든바 금번여름에이르러 지주전사유(全史有)의 아들 영복전(韓福田)(가명)이는 몹시심지가고약한자라 늙은이가 들어잇는집터가도로에면하고 쓸모가잇스니까 금년여름에 이르러이유를 부치다못하야 어린 아이들이 근처지기바레 농작물을함가친다고하야 곳집을 뜨더업새라고함으로 늙은이는 조케양해를어더보라고 백방으로 주선하엿스나 지난오일날 어느날 염(韓)은 인부들을 다라고와서사람이들어잇는집을 단짜고짜로허무러버리는고로 할수업시애걸애걸하야 한간만용납기게하고 그곳에서일곱식구가 지내게되엿다 (계속)



패여나온 벼이삭 (金浦近方에서)

驪州

第二回全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四、十五兩日間
▲場所 驪州新設運動場
◇主催 驪州體育會
◇後援 朝鮮日報驪州支局

廣惠院

中朝鮮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五日(雨天順延)
▲場所 萬升公普校코ー트
◇主催 廣惠院庭球部
◇後援 朝鮮日報社廣惠院分局

長湖院

第三回全朝鮮個人庭球

▲時日 八月八日午前九時부터
▲場所 長湖院公普校運動場
◇主催 長湖院運動團
◇後援 朝鮮日報長湖院支局

江華

第三回全江華個人團體卓球大會

▲時日 八月八日午前九時
▲場所 江華公普講堂
▲參加期日 八月七日午後까지
△主催 朝鮮日報江華支局
△後援 木曜會

二長篇小說二 花冠 【十】

李泰俊 作 金奎澤 畫

여름밤의꿈(十)

동욱은 그제야 엽부에게 차표를 주며 정히가 보는대로 마주선 남자들을 처다보앗다。그들은 차를 타는것도 아니요또 나리는 사람 속에서 다른구구를 맛는것도 아니다。떰떰히 정히의 여페만 섯는것을보아 모도가 자기를 마중나온 사람들갓다。

『어때요? 내가 이차엔 꾹온다구 안 그랫서요? 당신이 졋서요 어서 인사나해요』

하고 정히가 울려서며 동욱에게 마조 세워놋는 사나이、키는 짤달막하다。넥타이 끄른 캇러ㅣ의 소매를 것고 청사진(靑寫眞)뚤뚤 말은것을 쥐여던 손으로 헬멧을 벗는다。

『임동욱씨시죠? 진 배이[illegible]이올시다』

한다。정히가 [illegible]르는것이나 청사진을 쥐인것을 보아 별장건축을 간역하다 나온、정히의 약혼자가 틀리지안타。동욱은 낫선 남자와 통성명을 하는것은 처음 해보는인사라 모기소리만치

『네!』

하면서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하듯 허리를 한참이나 구부리엇다。

『하하! 아주 최경례를 하는구나……』

정히가 놀리는 바람에 동욱은 더 배일현의 생김을 처다볼 용기가 업서 어서 박그로 나갈 길부터 차젓다。간이역(簡易驛)이라 사방이 터지여서 어디가 길인지 알수업는데 정히가 또 막아서며

『애? 모두 너때문에들 나오섯는데……』

하고 사오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모조리 소개하려는 눈치다 동욱은 얼덜덜해지고 말앗다。그러나 얼른 그들이 한사람씩 나서기를 압질러 이쪽에서 먼저 그들 전체를 향해 아까배일현에게와 마찬가지로 허리를 굽히엿다。그리고는 난모른다는 듯이 정히를 밀치고 압을섯다

『아직 문사자 그대로 여학생 어립니다』

하고 정히가 웃는것은 그남자들에게 동욱을 변호함이엿다。

남자들이 뒤에 떠러저 서로 말소리가 안들릴만치 와서다。

『어쩌면 남을 그렇게 망신을 식혀? 웬사람들이냐?』

동욱은 그제야 뒤를 한번돌아다보며 물엇다。

『망신? 망신한 사람은 나야 너보담은』

『뭐? 이야말루 역습(逆襲)이로구나』

『절 아주 평장하게 마지해줄려구 명사들을 총동원적혀가지구 나가니깐……』

하며 정히도 한번 뒤를 돌아다본다。

『명사? 무슨 명사들이 할일이 업서서 알지도 못하는 여학생 오는걸 다 마중을 댕겨?』

『할일이야 쉬러 온 사람들이 무슨 할일? 이런데서야 심심치만 안는건 다 할일이지』

『모르는 사람 오는게 심심치 안쿠?』

『모르는 사람? 두 미인이 오는데 심심해』

하고 정히는 버릇처럼 눈웃음을 또쌜룩해 보힌다。

『뭐? 너 오라구 해노쿠 어러케 끌리기냐?』

『너 뭐 미인 아니냐? 명사들도 아주 내동무중에 제일 이쁜애가 온다니까 첫마듸에 척척 나서드라 얘…그런데 너 왜 저기 힌양복 입구 제일 압서 오지 안니? 그이한테 인사하지 안엇니?』

『뭐?? 그이가 누군데?』

동욱도 돌아다보앗다。소나무가지가 좀 가리기도 햇지만 기억속에서는 얼른 차즐수 업는 사람이다。

『그인 널 잘 안다던데?』

『날 알어? 이름이 뭔데?』

『김 장 두、긴ㅣ장자 말두자라지 아마』

『김장두? 은장두가 어떠냐?』

『정말 모르니?』

『몰라 정말이지 그럼…뭘하는인데?』

『몰르겟서……』

『김장두? 난 몰라…… 생각안나……』

『그런데 어떠케 저인 안다구 그릴가?』

하고 두 처녀는 다시 일시에 뒤를 돌아다본다。그 굽실굽실한 머리에 힌양복을 입은 사나이 그도 깁다만 얼굴이 이쪽을 유심히 쏘아보며 오는것이다。

樂器는 山口로
世界的優秀品은 所有者의자랑

山葉피아노
平台 九五〇圓부터
竪型 五〇〇圓부터
高級品各種

山葉오르간
百號 三二圓
三百號 六〇圓
四十號 九五圓
五號 一二〇圓
六號 一六五圓
七號 一九五圓
其外各型具備

家庭娛樂에 반드시잇서야할
레코ー드
빅타 콜럼비아 포리돌
新譜具備

蓄音器
빅타ー 三五圓부터
코럼비아 三五圓부터
포리돌 三五圓부터
코라 電蓄
豐富各種陳列

各種樂器
키타ー 七圓부터
手風琴 六圓부터
우크래래 三圓부터
其外一般樂器
防護團用樂器

型錄送呈
京城鍾路二
山口樂器店
鍾路支店 電光四八

性の不滿
内用トカピアンは斯る症狀に良く効く
早老、性慾減退、神經衰弱のため—精力減退—
性器衰弱—疲勞感—從意感—精神力衰退—
陰萎—遺精—夢精—早漏—老衰感等不感症の
ため非常に暗き家庭で幸福を知らざる御方は
是非共再び青春の歡喜悅樂に人生の最大なる幸福感を享受する事が出來るのであります

服藥報告實例의一部
江原道洪川邑西里五一 金昌順
藥始是이求하든不老草는最大强壯劑인トカピアン씨 數日前貴發賣中인滋養全貴店益益旺盛하시옴祝賀하는바이로소이다 貴店의全般的機能恢復劑인 トカピアン을註文하와試用한結果性慾이倍進하며心身이快樂하니萬事가太平하고하늘을어든것갓습니다 効果가百パーセント임으로右와如히다시 註文하오니材料를선택하여 百八十錠入九圓品을火速히代引으로下送해주시요 今後로나의동무들에게도널니宣傳하여드리오리다 トカピアン의効力이極히偉大하므로註文하시는손님이第一만호줄노밋사오며끗흐로付托하옵는것은 小包에トカピアン이라는글자를빼고보내주소서 註文方法 藥書로申込하시면 곳代引으로보냄但代引은 送料四十錢註文主負擔先金註文은 送料樂所負擔하옵送金은 第一安全한 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 東京漢洋藥學研究所로拂込하시고 郵便切手만은 一割을加算하시요、小爲替도좃숩니다

高級靈藥トカピアン 定價 三〇錠入 一圓五十錢 六〇錠入 四圓八十錢 百二〇錠入 九圓 百八〇錠入 十三圓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六
東京漢洋藥學研究所
振替東京三九三一五番

萬腫速治
特許 韓氏膏藥
HANSHIKOYAK
平壤府港町九十四番地
製造本舖
中城韓藥局

醬油調味料
昭和アミノサン釀造所
(營業案內書進呈)
釜山府佐川町二四四番地

海水浴歸り
元氣旺盛
銘酒 [illegible]鶴 の一杯
又殊に淸凉
醸造元 深見酒造場

外語部!! 中語·英語·獨語·佛語·エス語(各科初·中·高等)
京城外國語學院 新學期生徒募集
▲開學 八月二十一日 ▲京城授恩町(電光二一五五) 學則要三錢切手
◇本科(高等一、二、三、四、五年程度) ◇豫科(高普一學年入學準備) ◇受驗班(大豫專門受驗準備)

鼈腹(자라배)와 瘧疾(학질)에
金鷄丸 금계랍
定價二十錢부터一円까지어느약방에든
本舖京城 樂天堂製藥會社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電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絕無成功必定)
朝鮮高等電醫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八日ヨリ十一日マデ四日間
主演 エヂー・スームンダ氏 鐵拳熱血紳士
主演 桂寬太郎 ハヤフサ・ヒデト
赤心城
主演 杉山昌三九 三城輝子
木やり唄一番纒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七、 第二回 二、[illegible] 第三回 [illegible]
永樂町 本三一〇四
中央館

八月七日부터 開演時間 午後七時
劇團靑春座 ▲名劇絶賛好評▼ 全員白熱的演技
次週上演 李雲芳 『靑春日記』 宣傳週間
▲上演劇本▼ 林仙圭作
『사랑에속고돈에울고』(四幕五場)
[illegible]
九月山人作 『이子息뉘子息』一幕 爆笑劇
東洋劇場

二日より七日間 各席全部 大人五十錢 學生·小人 三十錢 小學生 二十錢
日活京都超特作 片岡千惠藏 轟夕起子 入社第一回作品
宮本武藏
日活多摩川特作 愛僕橘公子拔擢 主演
淸雅にして崇高なる新女性映畫
お父さんの歌時計
大每國際ニュース
全鮮第一封切 黃金座

週間大勢

株式 時局이 非常時局인 만치 市勢도 어데까지 非常時市勢를 展開하고 잇스니 北支事變勃發初 大崩落을 보엿다가 一段底入하고 反撥한市勢도 北支戰局再緊化와 中央軍北上에依한 戰線擴大豫想으로 前週에 反落하기始作하엿든것이 週初에들어 支那經濟破綻說에依한 諸商品의 底不知의慘落에加하야 事變費支辨을爲하야 增稅實施中이라고傳하야 再次 增稅를걱정내 投物이 殺到하는바람에 急轉崩落을 演하야 東京東新百三十六圓九、鐘新二百四十九圓丁의 新低價를示現하엿스며 그後 增稅의程度가判明되고 따마즘 米棉反撥에依한 綿絲의反撥로 諸商品이 모두 反撥하는것을好感하고 또 一方으로 支那側은表面頑强하나 其實戰意는 戰費調達困難等으로 稀薄하다는 說等을 傳하야 다시 急反騰面을보여 波瀾을 그리다음 民衆人氣로起伏無常한場面을 보이드니 週末에 漢口情勢險化를 傳하고 또 國府의 國防會議는對日一戰不可避를 主張케되엇다고 發達되자、在華紡을 先頭로한 雜株의 再崩落으로 主力株도 다시 賣叩되어 東京東新은 百三十五圓五의 低價를 示現하고 鐘新도 二百四十八圓臺의 新低價에도 崩落되엇다。元來 이市勢는 事變一本市勢이므로 漠然한 樂觀을 不許하엿든터이니 今後에도 中央軍파의 一戰이 잇다고하면 다시 惡化場面이잇슬지도 모른다。그러나 玉整理로 보아서는 이以上더할수업스리만큼 掃除가 敢行되엇스며、大衆은 오랫동안의 低落市勢로 賣에익숙하야 賣하고는 安心하는 態度이니 이런點으로보면 어떤 好材料도잇스면 反撥이 急할지도 모르는터요 또 事變市勢의 型態로보아서도 이미 初期의 低落市勢는 거의 末期에 接近한感이不無하니 차츰 買安心도不許할 時期가 迫到하지안흔가하는 생각도 不無하다 如何튼當分동안은 一時도 警戒를게을리할수는 업슬것이다

期米 新甫十月限은 阪地百五十丁下賣叩 三十二圓四十九錢에對하야 仁川은 百七十五丁下賣叩인 二十九圓九十九錢으로 無類의好順氣에 歡騰하엿고 그後 暴利取締令施行으로(農林省管內는 米穀除外)人氣를多少 損傷하야 新甫로부터 다시四五十丁의 低落되엇는데 天候만으로서 본다면 어대까지 收穫前에 妙味가잇서 大勢는 下勢라고 볼수밧게업슬것이나 여기서價位만은 다시檢討할必要가 잇슬것이다。勿論 今後 天候가 豐凶을左右하다면 仁川二十九圓臺도 잇슬지모르나 十一月限도 다시 百丁가량의下落가 잇슬것을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相當한 低價를 示現하게될것이니 豐作은 無類라하드라도 이物價高時代에 얼마나 實際地가잇슬지 疑問이다 더욱이나 準戰時體制下에 暴利取締令이 發布되는等 인플레에依한 時價前途에는 이미 暗示되고잇는 터이니 米價만의 低落은 難望일것이다 더욱이나 農家에서는 生產費以下로 賣渡치안흘것은勿論 農村의 政策統制도 相當히 强化되어잇는터이니 豐作人氣로 賣叩되는곳은 도로혀 絶好의買場이되고 말는지도 모르므로 豐作에만 醉하야 賣叩만하는것도 어떠할가한다。

生絲 米國의 消費減少에 依한 海外의不振境遇化로 八百圓大台割의 惡化場面을 보인市勢도 投物一巡과 環境의 少康狀態를보고 는利喰買物과 價位買物도反動高를보여 期近中心의 回復을 보이고 先物은 八百圓大臺의 爭奪戰으로 一張一弛의 場面을보이게되엇는데 이제는 事變에依한 市勢도 有力側의 投物一巡으로 出盡한듯하고 生絲自體의 實勢市勢로 還元하엿스니 비록 時局의 前途透視가 困難하야 今後에도 波瀾은 잇슬지 모르므로 亦是 警戒가 必要할것이나 時局의 最惡場面이라도 잇다면 모르거니와 그러치안흔限 低價圈으로부터 漸次 回復할것이라 보는편이 만타는 民가 아닌가고 여기도 强반모양이 나 價位가價位인만치 互商的 漢回은 大體合할것이다。

綿絲 事變에依한 對支輸出杜絶을憂慮가 當上의綿絲로 壓倒的勢力을 가진 때에 米棉의 二旬에亘한 大的 暴落이 마침내 當先二百圓臺다는 想像도못할 市勢를 展開하야 이暴風雨로 滿蒙市場는 强行的인 大掃除가 敢行되고말엇다。이드물게보는大暴落도 米棉이 害虫被害增大說도 反撥하고 그다음 十仙臺의 米棉은 生產費도 안되므로 商品金融會社는 三分半을 不越하는 利率로 新棉에 對해 十二仙의 融資를 할것이란 融資法案을 一上院議員이 提出한것을 契機로 大反撥을示하자 棉高豫想과함께 低然續騰하야 當限은 二百三十圓臺를 回復하고 先限도 二百二十三四圓臺를 보인後 週末에는 時局을反映하야 再反落하야 波瀾萬丈의 推移인데 十二仙臺의綿絲의前途도 速斷키難하고 時局透視가 困難하므로 採算打仕는 賣物이나 過低反動은 當然이슬것이란說도 잇다 다만人氣의市勢化할때에는 海外의大波瀾이 豐生되는법이니 今後相當한 警戒注意가必要할것이다

人絹 綿絲低、輸出不振、滯貨增加으로 瓦落場面을보여 一時는 六十圓臺維持까지가 困難지안을가 想像되엇스나 綿絲高로 人絹도 軟派에 急反撥裡에 先限는 七十圓臺를內迫하게되엇섯스나 去五日에 發表된 七月中의 加盟各社의 人絹生產高는 二十九萬四千六百七十六函의 新記錄으로 比前月一萬五千八百八十二函의增加를示하야 人氣는 軟化되엇다。生產增加는 豫想하엿다고하나 在荷增加는 好材料視할수업슬것이다。勿論 低落이 過度하엿고 지금의 價位은 七十五圓臺까지의 數는 잇슬지도 모를것이나 支那問題가 遷延되면 될사록 影響은 深刻할지도 모른다。(金城生)

貿易管理와併行 物資配給 消費統制
重要品別로官民協議會設置 政府萬全之策講究

【東京】政府는國際收支의適合、物資需給의調節을圖하고아울러北支事變을 契機로 今後 膨脹할豫算의 圓滑한遂行을期하며 爲替管理의强化、貿易及 關係產業調整法의 制定等에 依하야 輸出入貿易의 統制强化를 企圖하고잇는데 北支事變의 發展에伴하야 軍需品、生活必需品等의輸出入에 對하야서는 今後 益益 統制를 强化할 必要가 잇슴으로 일즉이 商工、大藏兩省에서는 그具體策에對하야 協議한結果 드디어 現下의 諸情勢에 順應할 非常時物資統制乃至 物資管理에 進出하기로되어 吾히 準備를 進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右物資對策의 動向은 貿易關係商品에對하야서는 從來의 爲替本位의 統制에서 物資本位의 貿易管理로 轉換함은必至이고 또右貿易管理와併行하야 對內的으로는 重要物資의 配給과消費의 統制에對하야 새로 對策을 講究할 意向으로 이를爲하야 目下特別議會에서 貿易及關係產業調整法이 成立되는때는 同法의 運用範圍를 極度로 擴大하야 貿易關係商品의 國內에잇서서의 配給、消費等에對하야適當한 統制를 加하는一方 그他 一般商品에對한 應急手段으로서 暴利取締令、資源調查法等을活用하야在荷調查、價格調整、配給組織整備、消費節約等의 國家統制를 遂行할方針으로 關係各省에서는 以上의

諸對策 外에 必要잇는 境遇는 省令을 公布하야 臨機의 措置를 講究하려고 萬全의 準備를 整頓하기로되엇다

(東京)政府는 現下時局에 鑑하야 全面的物資統制에 進出키로되엇는데 吉野商相은 重要物資의 需給統制를 圓滑케하고저 現在의 物價對策委員會와는 別個로 重要商品種類別로 官民協議會設置키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右協議會는 特別議會終了後直時設置하고 主로서 配給及消費의

統制策에對하야 關係業者의 自發的協力을要求하고저하는것으로 非常時物資統制의 第一着手라하야注目된다한다 그具體的方法에 對하야 愼重히 研究中인데 物價抑制의 有力한 對策으로 때가때니만큼注目되고잇다

重要品都賣商 免許制考究
暴利取締令强化코저

【東京】北支事變을 契機로하는 物價騰勢氣配에 鑑하야 政府는 暴利取締令을 强化하야 買溜、買占等의 暴利販賣行爲를 防止하기로 되엿는데 다시 이러한 事態가 오래 끌러 物價의暴騰이 國民生活을 破壞함과如한境遇에 對處하기爲하야서는 配給機關의統制를 一層强化할 必要가 잇다는 見地에서 都賣商의 免許制와如한 方策을 採用하려는 意向을 가지게되엇다 卽都賣商의 免許制라는것은

一、重要都市의 重要商品(國民의 主要食糧品인 米麥 包含)의 都賣商에 免許制를施行함

一、免許를受한 都賣商은 一定量以上의『스톡』을확保하고商品在高를 政府에 屆出할 義務를지고 境遇에 依하야서는 價格의拘束을 受함

一、小賣商의 販賣狀態에 對하야서는 都賣商에잇서서 嚴重監督을 行하게될터이다 다만 都賣商의 數가 만흔 國家에잇서서는 그運用上 幾多 考究할餘地가잇스므로 商工省에서目下 [illegible]

新義州에貯銀支店

府銀에서는 二十日午前十時臨時總會를 開催

一、新義州府에支店設置件

二、定款變更件

을 附議하리라고

商銀支店網擴充
中央線과滿浦線調查

朝鮮商業銀行에서는 營業網의擴充을圖하고 有力한 支店進出의 候補地를物色中으로 目下中央線沿線과 滿浦線沿線의都市에對하야 內內經濟調查를 進行하고잇다 同銀으로서는 今年下期에 一店、來年上期에一店을新設할意向인데 諸種關係上急速實現은困難한모양이라한다

產金獎勵補助金
追加豫算議會通過 總額四十萬三千圓

朝鮮金鑛業은 數年來躍進的發展을遂하야오든것인데 更히全面的進展을 促하기爲하야 產金獎勵補助金制度를 擴大할必要를認한總督府는 爲先本議會에 追加豫算으로서 要求中이든바 六日議會의 通過를 보앗다 其總經費는四十萬三千圓의 多額에 達하얏는데 그內譯은

金探鑛獎勵補助金	九萬六千圓
堅岩機設備費補助金	十六萬八千圓
選鑛場補助金	七萬三千圓
金鑛業共同施設費	四萬六千圓

으로서 從來일즉이 보지못하든 積極的助成의 方法을 講究한것으로서 다시來年度부터는 前記獎勵金의 增額其他 各種獎勵政策을 講究할 豫定이다 總督府鑛山課에서는 速히右追加豫算의 施行에關하야 調査에 着手하얏는데 補助額은 豫算의 範圍內에서 大體設備費의 三割乃至五割程度의 補助를할모양이다

鮮銀保證準備 擴張通過
月末臨總開催

懸案인 朝鮮銀行의 保證準備擴張은 今臨時議會에서 金評價換及時局關係로 豫想以上으로順調로通過되엇다 이에依하야朝鮮銀行은새로이 五千萬圓의無利子資源을確保하얏고 때마치朝鮮內資金難의狀勢及北支의新活躍의基 [illegible]

銀行窓口閑散
—貨物受託制限等輸送機關의不圓滑關係로

商人의商品仕入은 거의不可能한狀態에陷하얏고 一般購買力의萎縮으로 商取人은 夏枯期의影響도잇서極度로不振인데 이때문에 商業金融界도不振하야 銀行窓口는 非常히閑散하다한다 (高興窓口)

鮮銀券發行高
一億五千萬圓臺

鮮銀券의發行高는 八月上旬來 繼續하야 一億五千二百萬圓臺를 維持하고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大體一千二百萬圓의 膨張을繼續하얏다 前年에比較하면 滿洲關係의 收縮約二千五百萬圓임으로 朝鮮內의通貨增發을 考慮하야도 이增大는 北支關係에基한것이다

林業開發會社
八月末日創總

朝鮮林業開發會社는 八月三十一日總督府에서 創立總會를開催케되엇는데 同社는六日부터 東拓빌딩內에 設立事務所를 열고 社長으로內定된矢島前農林局長以下가 設立事務를 보고 잇는데 矢島氏는 如左히 말한다 當會社는 國有林五十萬町의 拂下를 受하기로 되엇는데 事務의目的은 長期에 亘한 計畫植林으로서 國有林伐材는 當分不能이므로 十五年間은 收入이업는 會社이다 會社經營에 要하는 經費는 政府의 補助로써 賄하게되엇다 實際上 技術的으로 植林하기 爲하야서는 幾分 成材를 伐木하겟고 從하야 그것에 依한 收入이 잇겟스나 收入이 잇슬境遇는 그만큼 補助가 減케된다 植林이 完成하면 北鮮製紙의 能力五倍量의 原木을 提供할수잇게될것이다

八、九月限의 新規賣買停止
朝取米豆部에서決定

暴利取締令의 發動에依하야朝鮮內의米穀淸算取引對策은 重視되고 六日總督府에서 各米取代表와懇談하얏는데 이에基하야朝取米豆部에서는 七日午後一時仁川에서 取引員組合緊急總會를開催하고 그對策으로서

一、八限及九限의 新規賣買를停止함 但正米賣買는可함

一、現八限、九限의取組玉는 轉賣、買戻에依하야 決濟함

의應急對策을 決定하고 九日부터實施키로되엇다 이것은 八限九限이 正米의不足과 輸送不圓滑로 暴騰의念慮가 잇는때문이다

米取代表者에게 暴利令을懇談

暴利取締令의 施行에 就하야 朝鮮에서는 日本內地와는 軸을내어 獨自的으로 米穀을指定하얏는데 總督府에서는 이에關聯하야 米穀淸算取引의 動向에深甚한關心을가지고 殖產局商工課에서는 六日午後부터 府로 全朝鮮五米取代表者를 招致하야 右에關한 重要한懇談을 하얏다

寸鐵

○物資配給消費統制、都賣商免許制等 統制는 前進又前進

○서울리 時局에乘機하야 暴利를取하랴들다가는 큰 코다칠일

○鮮銀保證準備擴張(一億圓으로)은 議會通過 돈이좀融通되리라나

○四十萬圓의 產金獎勵費도通過 金鑛하는이에게 喜消息

○十五年間 事業收入이 全無한 林業開發會社 不遠間創立

○國策的事業이지만 個人으로서도 子孫代의일을 생각하는 事業이必要

移出入貿易 入超大激增

七月中의 朝鮮對日本內地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單位千圓)

		前年同期比增
移出	三六、三三六	七、九三一
移入	三八、九〇二	一三、三六一
計	七五、二三八	二一、二九二
入超	二、五六六	五、三六九

一月以降累計는如左하다

		前年同期比增
移出	二三九、一〇二	二〇、七六九
移入	三五九、四四一	八一、九六四
計	五九八、七四四	九二、七二四
入超	一二〇、三三九	七一、一八五

卽移出激增에 依하야 一月以來 入超累計는 比前年同期七千百十八萬圓의 大激增이엇다

今日의市勢 【七日】
株式 雜株中心 崩落

前場崩落 戾賣人氣로起伏을反復하든차에 昨夕부터 漢口情勢의險惡化를傳하고 支那政府의國防會議도 强硬論이 大勢를支配한다고傳하야 在華紡等紡績株를筆頭로 諸株가 再轉惡化하야 主力株도一齊軟調로 東新一三八、八 鐘新二五二、九 大新七七一〇等에 寄付하엿는데休日을압두고 買方은 不安氣分으로 處分投物을 殺注하게되어形勢는드디어 收拾이 困難하야諸株가新低價에로奔落한後 東新百三十六圓四 鐘新二百四十七圓七 大新七十六圓五 日產七十圓三으로今週를마치고後場은 例休이엇다

再轉惡化

北支事態의 透視는困難하나增稅市勢一巡으로 株式의 落潮도거의終熄될順序가아닌가 觀測되엇든것이 支那側의 輿論이모두對日一戰不可避의 强硬論에기울고 特히漢口의情勢는 刻一刻險惡化하야 어느때다시 南中에서어떤事件이發生될지도 모른다는不安人氣로 雜株中心의 投物이續出하야 今朝의再轉惡化를 보게된것이다。勿論去般의 低價를下廻하엿고 또今後情勢가 如何히變化할는지 모르므로 감작이 樂觀할材料는업스나 다만玉整理의進捗、價位의低下、大衆賣玉의過多時間的으로 長久한동안 賣進되것等을생각하면 오히려時期를기다려逆으로買向함이 妙味가잇슬듯도한데 左右間行動을警戒不急裡에愼重할必要가잇슬것이다。

事變市勢定型

過去의經驗으로보면 大體事變市勢에도 一定型이잇는데 爲先事變乃至戰爭을 前期와後期로區分하면 前期가突發以來 어느期間(全期間의凡三分一程度)卽戰爭開始되어 相當히進捗되는때까지이다 그동안市勢는 極度로 惡化하나 어느期에들어서면 漸漸曙光을보인다 그리고 解決後는 事變에依한 蔓延度에比例하야 顯著히 活躍한다。이러한것이 事變市勢의定型인데 이經濟的理論的根據는 事變推移念慮로 事變의모든것을織込하므로따라서 後期는平穩하게될것이며解決後는 軍事費인플레展開가突込反動과相俟하야 活躍時代로들어가는것이다 그러데 現在는이때까지의 經過로보아 차츰그前期도 終末에接近하엿다고볼수잇슬것이란說도잇다

在華紡中心低

今朝의反落은 繼株가中心이오繼株中에서도 在華紡等紡績株가中心이되엇는데 買方의持株投物이續出하야 漸弛裡에 反落되고잇는現象이다 日華紡은二十圓丁으로三圓慘落이오 東華紡은六圓五下落으로二十二圓丁이며 同興紡은二圓三低로 三九、二 日本紡은四圓七低로 四七、八 東邦人造는三〇、八로 不變으로 繼株는 一齊不勢이며 三菱重工新의三七、〇인 一圓低 日立新의 二圓五低인 四七、五 神戶製鋼新의 三三、〇인 二圓八低 第三鋼管의 二六、八인 一圓七低 日石新의五八、二인六低、日窒新의八低인 二九、二等으로 軍需關係株도 一齊低落되엇다

鐘新拂込徵收

鐘淵紡績會社는 來九月一日에 新株에對해 十二圓五十錢의 最終拂込을 徵收하야 資本金六千萬圓의 會社가되므로 朝取에서는 九月一日부터 長期短期共히 鐘新은 五十圓拂込으로 賣買하기로되엇다

北炭拂込徵收

北海炭鑛會社는 九月一日新株에對해 十圓의 拂込을 徵收하므로 朝取에서는 九月一日부터 四十圓拂込으로賣買하기로되엇다

國債 換金買로 續落

【東京電話同盟】大藏當局의 預金部資金運用決定方針도 買氣를誘起하지못하고 連日金融念慮狀態로 換金急의 賣物이 續出하야 內地債는 五錢乃至十五錢 [illegible]

市場六感

(株) ……때가非常時라 市勢도非常市勢를 展開하야 거의豫測을不許▲北支情勢는 어떠케될것인가고 不安한心理를 가지게되면 不安은 끄치업는듯하나▲언제까지나 時局을파라利를볼것인가?▲事變市勢도그러저럭 低落이 一個月繼續하엿스니 인제는 低下로는 末期에接近?▲萬人賣의人氣로도底入接近을 暗示하건마는 事變의今後는 如何할가?▲警戒는 勿論必要하나 追擊賣에얼마나 妙味가잇슬지疑問 (金剛城)

(米) ……八、九兩限은 來九日부터 新規賣買를停止키로決定되엇다니▲在米薄인때요 輸送制限인때니 米價暴騰이잇다면 大衆生活의脅威가 될뿐아니라 取引所로서 收拾키어려운事態가이러날가바 未然에防止하자는것▲當局의警告와아울러 朝取引員으로서 當然한處事

期米 反撥裡에 堅調

前場堅調 今朝薄鈍으로阪地先限三十二圓〇五錢인 十丁反高를擲하고 當은三圓六十五錢인 三丁高 中은二圓〇五錢인 僅히二丁高로 先限은二十九圓七十九錢인十丁高로寄始한後 阪地十一錢으로 十三錢에昂進함에따라 八十七錢까지 昂騰하엿스나 그後阪地의少弛로 다시七十九錢을보인後 結局阪地十三錢을보고八十二錢에止揚하고 後場은例休이엇다

順氣賣도一巡 植付以後의 天候는 日本內地及朝鮮을不問하고 無類의好順을繼續하여왓스므로 完賣의正米의事情이 昨年凶作의極度悲觀임에도不拘하고 豐作豫想의賣氣가濃하야 新甫十限이 昨年同期보다 又一層大下落로 二十九圓九十九錢에發會하고도 오히려 餘勢가軟弱하야 六十餘丁의反落을告하더니 今朝부터는 阪地의反動高와 相俟하야 當地亦低價로부터 三十餘丁의反撥을 示하엿다 要하면 압흐로天災가橫在한今日에잇서 順氣賣는時期尙早의感이업지아니하고 또今年의米作이豐作으로 確定된다할지라도明年度豫算은 今年보다又一層增大하야 軍需『인플레』의 好景氣를 示現할것이므로 昨年秋季와如한瓦落은 絶對업슬것으로觀測하고잇다 勿論豐作을 告한後에는 어느程度까지의 反落은免치못할것은事實일것이나 그러나深入落은 期待키難할모양같다 結果如何?

朝取期米取朝內容

◆賣方			◆買方		
當	中	限	當	中	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正米 定期高로 少堅

京城强化 定期의 强保合으로 正米도 이에 追隨하야十錢高唱이되엇스나 取引은 依然閑散하다 ㊀三等三二、六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三四、五〇

仁川强調 正米事情은前日과 變化업스나 今朝期米의强調로 人氣强하야 市價十錢高唱이다 ㊁穀良三等三二、六〇 四等三二、三〇 銀坊主三等三二、八〇 多摩錦三等三二、五〇 四等三二、二〇 ㊂一二、九〇 一等白米㊁一二、七〇 ㊁一三、五〇

釜山堅調 持米側의 採算價로는 多少나마 整理를보이고잇스나 低價에는 實嵌하기때문에 市勢는低落되지안코 今朝期米의 少堅으로 精米側도 多少買急하게되어 市況十錢高를告하엿다 ㊁穀良三等三二、九〇 四等三二、八〇 一等白米一三、八五

大邱不變 休日을압둔今朝의淸算은 强調이나 買氣薄이市場에는 無影響으로 依然商談停頓의現狀이다 ㊁穀良三等三二、[illegible] 四等三二、一〇 一等白米一三、六五

群山奔騰 地方側의 賣惜으로 新規賣物이 皆無인때에 期米의 一齊騰勢로 買氣를 刺戟하야 市價三十錢高로 奔騰을演하엿다 ◎銀坊主三等 三二、〇〇 一等白米 一四、一〇

木浦保合 定期好調로 所持側이 軟化하는 模樣도업스나 買方도 時期待로 買傍觀狀態로 依然無活氣市場이다 ㊁銀坊主三等 三二、三〇 四等 三二、〇〇 一等白米 一四、〇〇

株式 ◆朝取短期◆

	前引	高値	低値
朝取	三〇・三	三〇・一	三〇・一
同新	九六・五	九六・五	九六・五

今日財界 七日

◆米 (單位錢)

	今日前引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九八二	一三高
大阪期米先限	三二三	一八高

	今日	比前日
㊀三等米一石	三二〇〇	一〇高
京城一等白米百키로	一三五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三等	[illegible]	[illegible]
고무神戶現	六二錢	不變

◆株 (單位十錢)

	今日前引	比前日
朝新	三〇一	—
東新	一三六四	二二低
鐘新	二四七七	六二低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三品

	今日前引	比前日
綿絲	二三六〇	六〇低
棉花	六七〇〇	一〇〇低
人絹	六七〇〇	一〇〇低
砂糖	一三八〇	一低

期 米 大 仁川海岸町

期米 康益夏 仁川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銀 石土白賣分 金金金買析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鑄石分析

株式 東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金白・銀金 京城明治町 杉山商會

海外經濟 六日

[illegible]

銀行券 六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對外爲替

◆金買入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illegible]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期米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限定代引日步◆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京城物價 (七日)

◆白米(一石、單位圓) 多摩錦特二七〇 一等二六〇
◆麥粉(二三斤、單位錢) 一〇、八〇
◆肥料(一〇貫、單位錢) 二國四、八〇 카메리아七、八〇
◆穀物(單位圓) 豌豆 (各種) 三、七〇
過燐酸石灰 仁川沖 一二、〇五
豆粕(安東産一등)一枚 一二、五〇
◆紙類 A(模造紙(斤) 一、二三七
中質印刷紙(同) 一、二一七
中紙純因州手四百四〇、八〇
朝鮮唐紙(塊)一、三〇、〇〇
潤紙(全州一枚) 四五〇
◆燃料(石、單位錢) 撫順石炭 塊 一九、一〇
煉炭一六 二一、九〇
京城煉炭木炭一等(二〇貫)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一、〇八 淺野一、〇八
◆砂糖(斤、單位錢) 白 二三、八〇 黑一四、五〇
分蜜 一九、二〇
◆鐵物(單位錢) 亞鉛引平板赤門(枚) 一、二一
丸釘 一叺(樽) 一七、六〇
鐵線六番(一〇貫) 九、七〇
丸鐵二分(同) 九、八〇
◆海産物(單位錢) 乾明太(駄) 三五、〇〇
乾大口魚(斤) 一、二四
곽지미역(手) 一、〇〇—五、〇〇
암 치(手) 五〇
◆染料(斤、單位錢) 硫化黑 一二、〇〇 黃三、七〇
鹽 三、七〇 灰一、六〇
白메인三葉卵A(二二瓩半) 八、九〇
◆木材(才、單位錢) 에나멜青淸色(二瓩)(立) 一、一〇
와니스日東(二瓩) 一、二〇
紅松 一、二九
嘉樂松 一、一七
杉 材(普通) 一、一六
라 완 二、五五
◆木綿(疋、單位錢) 毛本綿 一二、〇〇
澳珠紗 [illegible]
◆人絹(疋、單位錢) 文化絹 一、一四
澳珠紗 一、一一
◆毛絲(封度、單位錢) 極 細 ZC 二、五三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八五、〇〇
小 皮 八五、〇〇
中 皮 一等 七七、〇〇
同 二等 六七、〇〇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